1. 종교다원주의 배격
1. 동성애 반대
1. 차별금지법 반대
1. 자유민주주의 수호

제1160호
11월 21일
2020년
토요일

#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농협 301-0153-7296-01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57 주간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 차별금지법 반대, 법안 철회 되어야

##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 위한 한국교회기도회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한국교회연합(한교연),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세기총) 등 주요 교계 연합기관들이 주최하고,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가 주관한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11월 한국교회 기도회'가 지난 11월 12일(목) 아침 서울 광림교회(담임 김정석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기도회는 1부 예배, 2부 특강과 기도회로 열렸는데 예배는 소강석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의 인도로 박문수 목사(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의 대표기도, 이철 감독(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의 설교, 류정호 목사(한교총 대표회장)의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려졌다.

이철 감독은 엡 1:22~23 말씀을 본문으로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한국 교회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교육, 정치, 산업, 경제, 어느 하나 교회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이 없었는데 지금은 교회가 그 영향력을 잃었고, 비난을 받고 도전을 받고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교회가 권위를 회복하고 연합해야 하며 이 어려운 시기에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하되 차별금지법과 싸우면서도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함을 잊지 않고, 믿음에 서 가는 한국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2부 특강과 기도회 순서에서는 문수석 목사(한교총 대표회장)의 사회, 김정석 목사(광림교회)와 조일래 목사(세기총 대표)의 환영사와 인사, 한기채 목사(기성 총회장)와 김태영 목사(한교총 대표회장, 예장통합 직전총회장)가 생명존중주일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전하고, 남윤재 변호사(크레도 대표, 법무법인 산디 대표변호사)가 '시민운동을 교회에서'를 제목으로 특별 강연했다.

김정석 목사는 교회의 생존권, 낙태 합법화, 건학이념을 세우는 사학 등 한국교회의 공공성을 찾는 일에 대해, 조일래 목사는 차별금지법저지에 대해, 한기채 목사는 신앙, 양심, 도덕, 윤리에 부합되는 법제정을 위해 김태영 목사는 기독교 사학 수호를 위해, 남윤재 변호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비롯한 전반적인 사회 이슈들에 대해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서 릴레이기도로 박영호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 총회장), 안성삼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 총회장), 김윤석 목사(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 총회장), 박병화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총회 총회장), 김홍철 목사(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교단장), 김영숙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중앙총회 총회장), 홍정자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진리)총회 총회장), 김명희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보수개혁)총회 총회장), 서동원 목사(서울시교회와시청협의회 대표회장), 김길수 목사(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대외사무총장), 왕영신 목사(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고명진 목사(미래목회포럼 대표), 전용태 장로(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 등이 기도하고 김수읍 목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마무리 기도했다.

이들은 릴레이 기도를 통해 입법부의 성숙과 소통, 화합을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한국교회가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간절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했다.

푸른초장 맑은시내

## '성도들의 보배'

조용목 목사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셨은즉…"(신 26:18~19)*

매우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을 가리켜 '보배'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보배'라고 번역된 용어들이 사용된 구절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도들을 지칭하는 이름과 성도들이 소유하는 것들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도들은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모든 민족들 위에 뛰어나게 하시며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여주십니다.(신 26:18,19) 예수께서 흘리신 피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죄 사함을 얻게 하며 의롭다 함을 얻게 하여줍니다. 그 피의 가치와 능력과 귀중함은 온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산 것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여 주십니다.

**둘째, 성도들은 보배로운 지식을 가졌습니다.**

영생을 얻는 지식은 사람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완수하셨으며 성령강림을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 외에는 영혼이 잘 되게 하는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영생의 소식, 구원의 소식보다 더 보배로운 지식은 없습니다. 이러한 보배로운 지식을 듣고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은혜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광채가 비취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궤계로 훼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며 믿게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는 칭찬과 상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지극히 보배로운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 성도들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6)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죽어가는 회당장의 딸을 살려 주실 때,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으로 시달리며 겨우 생명을 부지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나음을 입을 때 하신 말씀의 핵심 단어는 믿음이었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나을 것이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셨습니다. 사람이 가지는 믿음 가운데 가장 보배로운 믿음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넷째, 성도들은 보배로운 약속을 가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약 혹은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믿는 사람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받은 사람입니다. 약속들 중에 압권은 죄 사함과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과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선하시고 진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성도들에게 주셨고 또 이를 상기하도록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한 탐심을 갖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공의와 사랑과 진실과 선함과 인내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보배로운 지식을 가졌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으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진리교회)

# "인간 생명의 절대 가치 보여준 기독교"

## 이상규 교수, "초기 기독교, 영아 유기·낙태 풍조에 맞서 전염병 재난 속에서도 기독교적 사랑 실천"

이상규 교수
고신대명예교수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지난 10월 말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전염병과 생명윤리'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이상규 교수(고신대 명예)는 '초기 기독교에서의 생명윤리-영아 유기, 낙태, 역병에 대한 초기 기독교의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현재를 돌아보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생명에 대하여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규 교수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야기된 근원적인 문제는 전염병의 전파와 이로 인한 죽음"이라며 "죽음의 문제는 역병의 피할 수 없는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오늘의 현실에서 초기 기독교회는 이런 역병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을까? 그들은 인간생명의 상실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 대답해 보고자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초기 기독교'를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 첫 300년, 주로 그리스-로마 시대 기독교로 규정했다.

**◈영아 유기**=그는 먼저 이 시기 '영아 유기'에 대해 "원치 않는 여아나 기형 남아를 유기하는 것은 합법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용인되었고, 영아 유기나 살해는 사회 전 계층에서 빈번하게 행해졌다"고 했다. 그런데 "이런 현실에서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영아 유기를 생명의 살인으로 보아 반대하고 당시대의 관행을 거부했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이 점은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이자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첫 300여 년 동안 영아 유기나 살해 관행을 비판하거나 거부했던 집단은 유대교의 전통을 이어받는 기독교가 유일했다"며 "기독교는 당시의 생명경시 풍조에 맞서 인간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보여 준 것이다. 따지고 보면 이것은 기독교회가 가르친 생명 윤리였다"고 했다.

**◈낙태**= '낙태'에 대해서는 "그리스-로마 사회에서 흔히 자행되던 생명경시 풍조였다"며 특히 당시 낙태 방법이 상당히 위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횡행했다는 이 교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는 불륜에 의한 성행위 은폐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였고, 경제적 이유, 재산 상속에 있어서 재산의 분산을 막으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런 시대에 살았던 기독교인들은 영아 살해는 물론이지만 낙태 또한 살인으로 보아 이를 거부했다"며 "초기 기독교는 특히 3가지 관점에서 낙태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태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 둘째, 낙태는 명백한 살인이라는 점, 셋째, 낙태 행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점이었다"고 했다. 그는 "그것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시 139:13~16)이자 인간생명을 중시하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응답이었다"며 "교회 지도자들도 이점을 강조하며 낙태를 금지해야 한다고 가르쳤다"고 했다. 이 교수는 "결과적으로 기독교 공동체의 출산율은 이교 사회보다 상대적으론 높을 수밖에 없었다"며 "미니키우스 펠릭스는 자신의 변증서에서 '날마다 우리의 수는 증가일로에 있다'며 그것은 '우리의 건실한 생활양식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기독교회는 혼인을 신성시했을 뿐 아니라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상급으로(시 127:3) 이해했다"고 했다.

**◈전염병**=끝으로 '전염병'과 관련해선 "초기 기독교는 재난의 원인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죄,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가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인정했다(시 89:31~33)"며 "이런 인식 때문에 재난과 위기의 현장에서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자기를 성찰하며 내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았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구했다"고 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도피 보다는 구호와 구제에 관심을 쏟았다"며 "기독교적 사랑을 실천하고자 힘썼다. 교회의 교사들은 위난한 시기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았고 이 점을 강조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그리스도인들의 활동은 기독교 공동체 밖으로 확산되어 사망률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며 "이교숭배자들의 회심과 기독교로의 개종, 곧 종교적 이행(移行)도 일어났다. 그리스도인들이 베푼 형제애적 사랑은 이교 숭배자들의 마음을 열어 기존 종교를 폐기하고 새로운 종교를 수용하는 변화를 가져 온 것"이라고 했다.

# 동성애옹호

##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규탄

전국 291개 단체가 연합하여 구성된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은 2020년 9월 KBS가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그 내용 가운데 동성애와 동성결합(동성가족)을 옹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규탄하며, 즉각 철회하거나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
**동성애와 동성결합을 옹호하는**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0년 9월 KBS는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 가운데는 동성애와 동성결합(동성가족)을 옹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전국 291개 단체연합으로 구성된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은, 운영비의 50%에 가까운 돈을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을 포함해서 전체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공영방송 KBS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4번의 판결을 통해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고 판결하고 에이즈 등의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결합을 비정상적으로 묘사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에 대해 규탄하며 즉각 철회하거나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4번의 결정을 통해 "동성간 성행위는 비정상적 성행위이고, 항문성교와 추행 모두 객관적으로 일반인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라고 판결 1)1) 헌법재판소 판결, 2001헌바70, 2008헌가21, 2012헌바258, 대법원판결 2008도2222 하였다." 2020년 질병관리본부 보고에 따르면 동성간 성행위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된 것이 이성간 성행위에 의한 것보다 많고,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청년의 에이즈 감염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방송 매체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성적자기결정권에 의해 이루어진 선택이기에, 부도덕하고 에이즈 등의 사회적 폐해를 주는 동성애를 방송을 통해 미화하거나 옹호하였을 때 성적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특히 KBS가 이번에 만든 가이드라인에는 동성결합조차 옹호하고 있어, 방송을 통해 동성결합이 미화될 것이 심각히 우려된다. 동성결합이 노골화되면, 다자성애, 다부다처 조차 미화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KBS는 2017년 국회의 개헌 논의 가운데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할 수 있는 성평등 개헌 주장이 강력한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철회된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가이드라인이 방송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잘못된 내용을 만들도록 강요한다면, 언론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국민의 여론이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될 것이라 심각히 우려한다.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되기에 건강한 사회를 선도해 나가야 할 KBS가 동성애와 동성결합을 옹호하는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에 대해 규탄하며, 즉각 철회하거나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0. 10. 29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291개 단체 연합)

# CTS 공동대표이사 이·취임 예배

## 이철 감독회장·신정호(통합)·소강석(합동) 총회장 취임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이하 CTS)는 지난 11월 4일(수) 서울 노량진 본사에서 〈제24대 공동대표이사 이·취임 감사예배〉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예배는 CTS이사인 고영기 목사의 인도로 CTS 22대 공동대표이사를 역임한 이승희 목사(대구 반야월교회)의 설교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의 축사와 CTS 17·18·19대 공동대표이사를 역임했던 전용재 감독의 축도로 예배가 드려졌다.

이·취임식에서 20·21·22·23대 공동대표이사를 역임한 전명구 감독과 23대 공동대표이사였던 김태영 목사, 김종준 목사는 이임사를 통해 "순수복음방송을 위해 험난한 길을 가고 있는 CTS의 현신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성경적 가치를 붙들고 나가는 방송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CTS 제24대 공동대표이사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신정호 총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소강석 총회장이 취임했다. 이철 공동대표이사는 "코로나19 사태로 방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CTS가 복음사역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힘써 협력하겠다."라고 취임사를 밝혔다. 그리고 신정호 공동대표이사는 취임사에서 "다른 공동대표이사들과 함께 열심히 협력하여 섬기겠다."라고 말했다. 소강석 공동대표이사는 "CTS가 영혼과 영혼을 만나게 하는 영택트 문화를 이뤄가길 바란다."라고 취임사를 전했다.

CTS 감경철 회장은 "이임 공동대표이사와 취임 공동대표이사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오는 12월에 진행되는 '온라인 비대면 성탄트리 점등식'과 '2020 코리아 퍼레이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아울러 CTS는 앞서 진행된 '2020 임시 주주총회'와 '제105차 이사회'를 열고 순수복음방송의 세계화와 다음세대의 신앙 회복을 위한 계획을 전했다.

# 한교연 성민원, 성민청소년복지학교 개최

## '세계를 품고 자유를 사랑하자' 21년간 수료생 5,200여 명 배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회원 단체인 사단법인 성민원(이사장 권태진)이 지난 10월 24일, 31일 양일에 걸쳐 군포제일교회 복지센터에서 청소년과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2기 성민청소년복지학교를 개최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1단계로 완화된 후로 늦춰져 두 주간에 걸쳐 진행됐다.

지난 10월 24일 있었던 첫 번째 강의는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파트너 변호사)가 '자유를 억압하는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강의했다. 30일에는 고세진 목사(한교연 대외협력위원장. 전 아세아연합신학대 총장)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주제로 두 번째 강의를, 같은 날 이혁재 강사(HH컴퍼니 대표)가 '도전과 실패의 함수관계'를 주제로 세 번째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박성제 강사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창 1:27)',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레 18:22)'는 성경 말씀에 기초해 "동성애는 하나님 나라와 양립할 수 없는 추악한 죄목일 뿐 아니라, 차별금지법은 소수자의 인권을 무조건 우대해야 한다는 왜곡된 인권에 기반해 역차별을 야기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고세진 목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국가가 모든 것을 지정해주거나 못하게 하는 제도로 실제 주장과는 반대되는 거짓된 제도"라며 "예수님은 부의 재분배가 아닌 각 개인이 가진 것으로 불쌍한 사람을 도우라고 하셨다. 기부는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만 볼 수 있는 선한 문화"라고 강조했다.

이번 성민청소년복지학교에 참가한 중·고등학생들은 코로나19로 봉사자의 발길이 끊겨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역의 독거노인들을 위해 자원봉사도 함께 했다. 참가자들은 지역 내 독거노인 100가정에 친환경 살균소독수와 각종 식료품이 담긴 '코로나19 방역키트'를 전달하며 잠깐이지만 어르신들께 안부를 전하고 따뜻한 위로를 전했다.

한편, 성민청소년복지학교는 미래 사회의 주축이 되는 크리스천 청소년들이 인간의 존엄과 자유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미래의 건강한 주역이 되도록 '세계를 품고 자유를 사랑하자'를 주제로 다양한 이론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 2020 직장선교 전국대회&예술제 온라인 개최

## 제32회 전국대회 및 제34회 예술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한직선, 이사장 주대준·대표회장 손영철)가 지난 11월 14일(토) 10시부터 12시까지 한국성시대학교 로고스홀에서 '2020 직장선교 전국대회&예술제'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한직선은 전국 직장선교 회원이 한자리에 모여 직장선교의 소명의식을 고취하고, 회원 간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직장선교 전국대회와 예술제를 개최해 왔다. 창립 39주년을 맞이한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언택트 온라인 예배 및 비대면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롬 12:1~2)라는 주제로 개회식과 1부 예배, 2부 전국대회 예술제로 진행했다. 개회식은 손영철 대표회장의 대회사, 주대준 이사장의 환영사, 손윤탁 한국직장선교목회자 협의회 대표회장의 격려사, 두상달 국가조찬기도회장의 축사 순으로 이어졌다.

1부 예배에서는 이기용 신길교회 목사가 설교했으며, 직장선교와 민족복음화,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를 위한 뜨거운 합심 기도회로 이어졌다.

2부 전국대회와 예술제에서는 한휘진 서울시청기독선교회 회장, 차경희 대전 통계청 기독선교회 간사, 박명자 직장선교대학 간사, 이훈 40주년준비위원회 본부장이 직장선교 사례를 발표한 후 직장사역연구소 소장 원용일 목사가 특강 순서를 맡아 진행되었다.

예술제는 △경기남부경찰청 △보험기관연합회 △대전지역연합회 △울산지역연합회 △서울교통공사 등이 출연하여 열띤 찬양 경연을 펼쳤다.

한직선은 "한 해 동안 직장 사역을 결산하며 그동안 수고한 직장 선교사들을 위로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라며 "그동안 코로나로 직장선교 예배가 중단되고 찬양을 부르지 못했는데, 코로나 위기 속에 숨어있던 직장선교 사례를 발표하고 예술제 찬양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직장선교에 대한 도전과 감동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합동·개혁 교단합동 15주년 기념 감사예배

## 하나된 15년, 더 큰 화합 플랫폼돼 한국교회 연합 사명 감당

15년 전 예장합동과 예장개혁의 교단합동 감격이 다시금 재현됐다. 지난 10월 29일(목) 서울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합동·개혁 교단합동 15주년을 기념하는 감사예배는 그간 분열됐던 교단이 한국교회 역사상 최초로 다시금 하나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동시에, 분열로 얼룩진 한국교회의 진정성 있는 연합과 쇠퇴하고 있는 세계교회를 보호하는 사명과 비전을 품는 은혜의 장이었다.

합동·개혁 교단합동 15주년 기념 감사예배에는 총회임원과 증경총회장, 총회 산하 기관장 및 속회장, 상비부장 및 서기, 총회실행위원 등 교단 인사들을 비롯해 정계·교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해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나눴다. 특히 참석자들은 1979년 분열로 오점을 남긴 합동과 개혁 교단이 2005년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으로 한국교회 최초로 다시금 하나의 교단으로 거듭난 역사성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보수개혁신학으로 교회의 성결과 한국교회 연합의 사명이 교단에 주어졌음을 재확인했다.

이날 감사예배 시작에 앞서 총회장 소강석 목사와 증경총회장 서기행·홍정이 목사가 사무총장 이은철 목사·정신길 목사·김용수 목사로부터 전달받은 총회기와 옛 합동·개혁교단기를 흔들며, 양 교단이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 (사)예총연 선교협, 제3차 선교대회

## 선교혁명 이루어 선교적 사명 적극 감당할 것 다짐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합회(대표회장 강용희 목사, 사무총장 반정웅 목사) 신하선교협의회(회장 이하영 목사)는 지난 11월 5일(목) 오전 11시 서울 종로 소재 여전도회관 루이시기념관에서 제3차 선교대회를 갖고 21세기 영적대각성을 이루어 선교적 교회를 이루어 갈 것을 다짐했다.

'선교적 사명'이라는 주제 아래 열린 이날 선교대회는 부회장 송수자 목사의 사회로 부회장 이형노 목사의 기도, 부회장 오경애 목사의 성경봉독, 회장 이하영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이하영 목사는 계 13:9~10 말씀을 본문으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결심'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계시록은 언약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선교혁명을 이루기 위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이며 우리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순교를 각오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하영 목사는 계속해서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들은 어느 시대, 어느 교회들에게도 보편적으로 필요한 진리"라며,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고 증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합심기도 시간을 갖고 '21세기 영적대각성을 이루기 위해', '선교적 교회를 이루기 위해', '한국교회의 개혁과 연합을 이루어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 '목회자와 성도들의 가정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 '교회 주변 복음화를 위해', '한반도 통일과 북한선교를 위해', '세계선교와 선교사를 돕기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 이정익 목사, 실천신대 6대 신임총장으로 취임

## 실천신학, 실천목회 구원의 복음 전파 사명 감당

신학 이론과 목회현장의 가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세워진 국내 유일한 신학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이하 실천신대)의 6대 총장으로 이정익 목사(신촌성결교회 원로)가 취임했다.

올해로 설립 15주년을 맞는 실천신대는 지난 11월 3일(화) 오전 11시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본교에서 교계와 신학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새로운 도약을 모색했다.

본교 기획처장 조성돈 박사의 사회로 진행된 취임식은 임은빈 동문회장의 기도와 김선영 총무처장의 성경봉독에 이어 김상복 박사(전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가 '실천적 연구와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김 박사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교단에서 이 박사님의 훌륭한 목회를 통해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았다. 진리를 가르쳐 많은 제자를 일으키시고, 목사님이 가시는 곳마다 혼란스러웠던 곳들이 정돈되고 치유가 일어났다"며 "이 박사님이 총장이 되심으로 예수님이 보이신 실천적 사역이 이 학교를 통해 재현되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이범석 교학처장의 총장 약력소개에 이어 임명패 수여 후 취임사를 전한 이정익 박사는 "이제 짐을 내려놓아야 할 나이에 새로운 짐을 지게 된 것이 영광스러운 마음이지만 한편으론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미력이나마 소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 박사는 "실천신대는 여러 신학교가 이론과 학문에 치우친다는 우려로 은준관 박사님을 중심으로 뜻있는 지도자들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세운 학교"라며 "이곳에서 공부한 많은 목회자들이 진취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목회 현장을 구현하고 일궈나가고 있다"고 했다.

# 제9회 한국장로교 신학대학교 찬양제

##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그레이스홀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주최하고 한장총 신학대학교 찬양제 준비위원회가 개최한 제9회 한국장로교신학대학교 찬양제가 지난달 말 백주년기념관에서 은혜중에 잘 치러졌다.

금년 신학대학교 찬양제는 코로나19 전염병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매년 시행하던 찬양제 진행방식인 합창과 연합찬양을 지양하고 참가자 숫자를 제한하기 위해 독창제로 계획하고 진행하였다.

설교를 맡은 윤희구 목사(증경대표회장)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드려야 할 찬송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찬송·찬미·찬양의 의미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결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화로우심에 대한 찬양"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기쁘고 즐거울 때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했다.

# 그교협, 신임회장 김홍철 목사 선출

## '그리스도의교회복음회유지재단' 관련 대책위도 구성

정통 환원교단의 정체성을 지켜가고 있는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난 10월 19일 경북 문경 STX리조트에서 제85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9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정기총회는 코로나19로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가, 방역단계가 다소 완화된 지난 19일 정기총회를 열었다.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교회가 되자'(요 12:24)라는 주제로 총 107명의 목사, 장로 총대들이 참석한 총회에서는 축소된 일정 탓에 임원 선출과 주요 안건만 처리했다.

금번 총회를 통해 신임 회장에 오른 김홍철 목사(하나교회)는 먼저 "한 알의 밀알이 되자는 주제 속에 우리의 사명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교단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모토로 지금껏 달려왔다. 힘든 상황일수록 예배를 통해 하나 되는 일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가 이번 정기총회에서 다룬 여러 안건 중 갈현동 대지 지분 양도 건, 유지재단 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먼저 협의회는 서울기독대로부터 매입한 갈현동 대지 중 일부 지분을 기독교특수선교회에 양도키로 결의했다.

앞서 선교회는 대지 매입 당시 발생한 협의회의 부채 5억 4천만 원을 대신 갚아 준 바 있다.

# 믿음의 자세로 따르는 삶 다짐

## 전북지방회

전북지방회(회장 유관영 목사)는 지난 11월 10일(화) 오전 10시 30분 함라순복음교회(담임 이광호 목사)에서 월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예배는 총무 이광호 목사(함라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증경회장 최병진 목사(익산은혜와진리교회)의 기도와 증경회장 김종호 목사(순창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종호 목사는 딤전 6:11~12 말씀을 본문으로 '믿고 따르는 삶을 살자' 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다가 중도에 환경과 조건에 따라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죽는 자리까지 따르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갈 길이고 믿음의 자세"라고 선포하였다.

이어서 지방회장 유관영 목사(좋은나무교회)의 광고와 증경회장 표재옥 목사(성령알곡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또한 2부 시간은 회장 유관영 목사의 인도로 진행하였고 함라순복음교회에서 준비한 식사와 차를 마시고 함라산을 등반하며 교제시간을 가졌다.

#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목회자 다짐

##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김기인 목사)는 지난 11월 10일(화) 하늘소망교회(담임 조정훈 목사)에서 11월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예배는 정세창 목사(은혜교회)의 예배 전 찬양인도에 이어 김남순 목사(헐몬산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김진현 목사(비전순복음교회)의 기도와 김미연 목사(열린순복음교회)의 성경봉독 후 사모중창단의 은혜로운 특송, 지방회장 김기인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히 12:1-3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의 주' 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해주셨다. 이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본받아 이제 시대도 변했으니 예수님 닮는 믿음을 가지고, 내 생각, 내 뜻을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 베풀며 온유하고, 진실하고, 겸손한 주의 종이 되어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푯대를 향해 나가는 지방회가 되자"고 당부하였다. 이어 합심기도 후에 조정훈 목사의 헌금기도와 직전회장 정석현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병원에 입원중인 최병일 목사에 대한 빠른 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가진 후, 회장의 인도로 11월 월례회를 은혜롭게 마치고, 기념촬영 후에 하늘소망교회에서 준비한 오찬과 다과를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나눈 후에 정세창 목사가 준비한 밴드와 하늘소망교회에서 준비한 떡과 식혜 등 선물을 안고, 인근 카페에서 교제를 나눈 후 각자의 목양지로 향했다.

# 태백시를 성령으로 변화시킨다!

## 태백시기독교연합회 제40차 정기총회

태백시기독교연합회는 지난 11월 11일(수) 태백순복음교회에서 제4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장에 진장길 목사를 선임하는 한편 임원진을 새롭게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이종민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김성호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진장길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진 목사는 요 6:26-35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한 귀한 이 지역에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을 힘을 합하여 감당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당부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류베형 목사의 광고 후 오대석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회장 표창근 목사(태백목양교회)의 인도로 회무처리에 들어가 사업보고, 감사보고, 회계보고 등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전형위원에 의해 신구임원을 교체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황지남부교회 권오종 장로가 아들 결혼 축의금 중에서 3백만 원을 총회 행사를 위해 사용해달라며 태백시기독교연합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에 선출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 진장길 목사, 부회장 이종민 목사, 백창곤 목사, 류배형 목사, 총무 김성호 목사, 협동총무 최상규 목사, 송인도 목사, 이동광 목사, 박찬철 목사, 서기 김동준 목사, 부서기 황병운 목사, 회계 나우철 목사, 부회계 노영권 목사, 감사 권종욱 목사, 정종옥 목사

# "반 교회적, 반 성경적인 NCCK 인권센터 규탄"

## 감리교회 거룩성 회복을 위한 제4차 기도회 열려

감리교회 거룩성 회복을 위한 제4차 기도회가 지난 10월 20일(화) 용인 수지선한목자교회(담임 강대형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도회는 감리회 거룩성 회복을 위한 비상대책협의회와 감리교회 바르게 세우기연대 주관, 감리회 서울연회(감독 원성웅) 후원으로 열렸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서는 동성애자 축복식 이동환 목사 정직 2년 판결을 비판한 NCCK 인권센터(이사장 홍인식 목사)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에서는 "NCCK 인권센터의 연합기관으로서 도를 넘는 행보에 우려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으며 코로나 정국 초기부터 지금까지 NCCK는 한국교회를 대변하기보다, 노골적으로 이 정부의 대변인 노릇이나 하는 어용 기관으로 전락해 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적어도 정상적인 교회 연합기관이라면, 동성애는 죄라고 명확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본연의 자세"라며 "감리회는 이런 건전한 교회연합운동에 선구자적 역할을 감당해 왔다. 그러나 교리와 장정을 훼손한 동성애 재판 결과를 취소하라고 규탄하는 그들의 몰지각한 행위는 그들이 규탄 대상임을 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각 교단 부담금으로 운영하는 연합기관인 NCCK가 더 이상 반(反)교회적이고 반(反)성경적인 일탈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경고한다"고 역설했다.

이후 2부에서는 최항재 목사(청운교회) 사회로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가 '젠더주의에 대한 한국교회 대안' 이라는 특강을 진행했다.

3부 기도회에서는 실행위원 최상윤 목사(예광감리교회) 인도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이명재 목사)', '동성애 합법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한철희 목사)', '교회의 거룩성이 무너지지 않도록(김재탁 목사)', '신학교를 위해(임성모 목사)', '정상적인 예배 회복을 위해(최영익 목사)', '교회 리더십을 위해(정희환 목사)', '나라와 민족, 정부를 위해(정경윤 장로)' 등을 놓고 합심기도했다.

# WAY CHURCH 창립,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다짐

## 강원동지방회

강원동지방회(회장 박순용 목사) WAY CHURCH(담임 김형준 목사)는 지난 11월 16일(월) 강릉시 사천면에 있는 새성전에서 교회 창립예배를 드리고 찬양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강릉과 대한민국, 전 세계를 품는 교회로 성장해 갈 것을 다짐했다.

목회자인 부친을 따라 목회의 길로 들어선 김형준 목사는 강릉기독교방송 찬양팀을 이끌고 있어 말씀과 찬양 사역자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이날 창립예배에서 예배 전 찬양팀과 함께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리며 예배를 시작하여 열린교회 유홍열 목사의 사회로 강릉순복음교회 정주영 목사의 대표기도, 강릉기독교방송 Gam Ministry의 찬양, 교단 증경총회장 이창재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 목사는 눅 6:46-48 말씀을 본문으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교회개척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기에 먼저 초대교회처럼 찬양과 기도, 말씀이 있어야하며 그 다음에 믿음이 사람들을 세우고 초심을 잃지 않고 인내함으로 목회사역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고 교회창립을 축복했다.

이어 성지교회 진장길 목사의 헌금기도, 부친인 김태우 목사의 권면과 축사, 지방회장 박순용 목사의 창립 및 취임선포, 담임 김형준 목사의 인사말씀, 박순용 목사의 축도로 창립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참석자들은 함께 기념촬영한 후 WAY CHURCH에서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함께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아름다운 WAY CHURCH가 될 것을 축복했다.

# 11월 월례회 갖고 성령을 좇는 목회 다짐

## 경기북지방회

경기북지방회(회장 오세준 목사)는 지난 11월 10일(화) 오전 10시 30분 축령교회(박웅진 전도사 시무)에서 월례회를 갖고 교단과 지방회의 발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였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회계 문찬우 목사의 사회로 우광덕 목사의 대표기도, 문찬우 목사의 성경봉독, 지방회 서기 강인덕 목사의 갈 5:15~26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성령을 좇아 행하라' 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설교 후에는 다같이 총회와 지방회, 축령교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고, 지방회 총무 육준수 목사의 헌금기도와 증경지방회장 한승수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오세준 목사의 사회로 지방회 서기 강인덕 목사의 회원점명, 총무 육준수 목사의 서기보고, 재무 강인덕 목사의 재무보고, 회계 문찬우 목사의 회계보고가 이어졌고, 기타 안건에 대해 토의한 후 지방회장 오세준 목사의 폐회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 바른교육교수연합 태아생명살리기 성명서

바른교육교수연합의 대표 이용희 교수가 지난 11월 11일(수) 청와대 인근에서 낙태죄 폐지 반대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낙태 반대-태아 살리기' 운동**

**'우리 모두 태아였다'**

지난 10월 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부의 낙태법 개정 법안은 임신 14주까지는 임의로 낙태를 허용하고, 24주까지는 '사회경제적 사유' 만으로도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부작용이 많은 '먹는 낙태약' 인 자연유산 유도제 사용을 허용하고, 16세 이상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 없이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것이 정말 여성을 위하고 태아를 위한 법안인지, 또 국민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법안인지 묻고 싶다.

원래 낙태죄는 태아의 존엄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생명권은 타협과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어떠한 인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인권이다. 한 남자와 한 여자에 의해 잉태된 생명에 대해서 왜 아무 죄가 없는 태아를 죽임으로써 당사자들과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가? 태아를 죽이는 낙태를 합법화할 때 생명경시 사상은 이 사회를 병들게 하여 망국의 길로 가게 된다. 동물들도 자신의 태아를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 쓰는데, 왜 우리는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태중의 아기를 죽이는 것을 합법화하는가? 낙태죄는 상황에 따라서는 여성을 보호하는 법이다. 이 법이 없다면 여성은 태아뿐만 아니라 임신한 자신도 지키지 못할 것이다.

태아는 임산부와 다른 독자적인 유전인자를 갖고 있어 엄연히 다른 인격체인 인간이다. 생명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님으로 그 누구도 다른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 페미니스트가 말하는 재생산권은 그 존엄한 생명을 자신이 소유하거나 죽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태아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이 여성의 권리라는 주장은 반인륜적이다. 우리는 인간의 생명을 살릴 의무는 있지만 죽일 권리는 없다.

2019년 한국의 가임여성 당 출산율은 0.92명으로 세계 최저이다. 낙태죄마저 폐지된다면 우리 민족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소멸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2019년 저출산 대책에 관한 예산이 26조 3천억 원이었으나 출산율은 더 감소하였다. 낙태를 방지하고 미혼모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출산하여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더 작은 예산으로도,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태아는 가장 연약한 상태의 인간이기에 엄마의 뱃속에서 보호받고 사랑받도록 되어 있다. 참된 여성의 권리는 이런 태아를 보호하고 출산하여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죽음과 절망과 슬픔이 아닌, 생명과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사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

여성과 태아를 위한 낙태법의 개정을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부는 생명존중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 포괄적 성교육으로 성적자유와 피임과 자유로운 낙태 등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생명의 존귀함을 가르쳐야 한다. 태아의 출산과 양육은 한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와 사회와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생명존중 사회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1. 비밀 출산법을 제정해야 한다 : 태아의 생명과 미혼모의 비밀을 보장하여 미혼모가 안전하게 편안하게 출산하여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명을 존중하고 임신, 출산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비밀 출산법을 제정할 때 낙태와 영아 유기와 같은 일을 방지할 수 있다.

1. 남성 책임법을 제정해야 한다 : 임신은 한 남성과 한 여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정부 낙태법 개정안은 남성의 책임을 배제하고 여성의 문제로만 다루고 있어서 여성을 차별하는 법안이다.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남성의 20년간 자녀양육비 부담 등 양육 책임에 대해 남성도 함께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이 되어야 한다.

1. 입양특례법을 개정해야 한다 : 아기들이 더 많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에, 쉽게 입양될 수 있도록 입양특례법을 개정해야 한다. 아기들이 건강한 부모에게 양육되면 아기들은 행복해지며,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고, 건강하고 밝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2020. 11. 11.

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 이용희

**목양신문은**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합니다! 동성애자는 사랑으로 품지만 동성애는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역차별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제정을 반대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합니다!**

- 구독문의(우편발송요금) 02)2677-9936
- 광고문의 02)2677-9936 FAX 0504)027-0897
- 웹하드 : ID mok677 PW 5277
- E-mail : mok2677@naver.com / mok2677@kakao.com

생명의 말씀

# 하나님의 주권과 회복

호 6:1

이용호 목사
· 한복협 지도위원
· 서울영천교회 원로

호세아 6:1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지금 우리는 개인이나 국가 그리고 온 세계가 세 가지 바이러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첫째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이제는 마스크 착용과 비대면과 거리두기가 일상화 되어 버렸습니다.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느 개인이나 국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둘째 이상기후 바이러스입니다. 지구온도상승, 빙하해빙, 해수면온도상승 등은 지구를 파멸의 길로 몰고 가는 현상이라고 경고합니다. 폭염, 긴 장마, 폭우, 태풍, 폭설, 혹한, 대형 산불, 지진, 화산폭발 등 이상기후의 공격에 시달리며 살고 있습니다.

셋째 불공정 바이러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인종차별, 난민학대 등 부정부패, 폭력과 학대가 지구촌에서 범람하고 있습니다. 문대통령은 취임사와 담화문에서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우선인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과정은 평등하고 기회는 균등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체감이 잘 되지 않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국민보다는 권력자 우선이고 약자보다는 강자 우선이고 피해자보다는 가해자 우선이고 상대편보다는 내 편이 우선입니다. 이러한 불공정 바이러스가 우리를 시달리게 하고 사회는 불의와 불법이 통하는 모순과 부조리가 심화되어 가는 현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주권과 회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는 차원이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은 인공지능의 활용과 기술영역의 발달로 직업과 문화와 교육 등 모든 분야에 엄청난 변화와 도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도록 동일하십니다(히13:8)"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4차 산업의 기술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임과 죄인됨과 은혜로 구원받은 신앙고백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립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절규합니다.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1.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후 10:4~5)

1) 하나님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십니다.

2)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십니다.

3)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십니다.

4)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십니다.

**2. 하나님은 회복자이십니다.**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고 했습니다.

코로나 환경에서 온라인 예배가 일상화되어 버린 지금 교회는 예배의 큰 도전과 불가피한 변화 앞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교회마다 예배의 회복을 애타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생활환경도 온라인 기능으로 지배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예약도 쇼핑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자유로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영적 환경은 점점 쇠퇴해 가는 현상입니다.

회복은 하나님께 있으며 회복케 하시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3. 하나님은 모든 것의 원점이시고 완성점이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계 1:8)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계 1:17)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 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고" (행 5:38-39)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핍박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 외친 준엄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은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케 하십니다. 인간은 시작만 보지만 하나님은 끝도 동시에 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출생과 사망도 동시에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를 동시에 통치하고 계십니다.

**결론**

해답은 브니엘의 은혜를 입는 데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칼날 앞에서 생명의 보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브니엘의 축복과 은혜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 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창 32:30)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온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창 33:10)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원수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원점과 완성점이 되시는 주권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복의 은총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 기독교계 방송에 재갈물리는 방통심의위

최근 잇달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 이하 심의소위)는 기독교계 방송에 대하여 법정제재를 추진하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

지난달 21일에는 심의소위가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통해, 지난 7월 1일과 4일에 CTS기독교TV의 "긴급 대담-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에 대하여, 심의 위원 1인(이소영)은 '관계자 징계' 를, 허미숙 소위원장을 포함한 3인(강진숙, 박상수, 허미숙)은 '경고' 를, 그리고 이상로 위원만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이렇듯 법정 제재를 결의한 심의위원들의 의결 이유는 방송에서 차별적 발언을 여과 없이 했다는 것과,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인사들로 채워 방송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지난 28일에는, 지나간 7월 9일 FEBC극동방송에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한 것을, 3인(허미숙, 강진숙, 박상수)위원은 '경고' 를, 이소영 위원은 '관계자 징계' 를, 그리고 이상로 위원만 역시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기독교계 방송인 CTS기독교TV와 FEBC극동방송에 내린 결론은 똑같다. 두 방송은 정치권과 정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 법이 만들어질 경우, 기독교에 나타날 피해와 사회적 피해를 예견하여 말한 것이다. 또 유럽 사회에서 이미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이 법안의 위험성을 알린 것이다.

그런데 방통심의위가 이를 차단하려고, 기독교계 방송 본연의 역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방통심의위가 정말 국민을 위하고 방송 수용자들을 위한 국가 기관이라면, 이렇듯 윽박지르듯 '경고' 와 '징계' 를 남발할 것이 아니다.

방송법 제5조는 "방송의 공적 책임" 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2항에서 방송 편성에 차별을 두지 말라고 하면서도,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 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여, 종교방송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 제6조 4항에서는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 · 신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방송심의위는 이러한 기독교계 방송들이 방송 수용자들을 위하여, 좋은 방송으로 오히려 국민의 건강과 잘못 제정되는 법률로써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하여 칭찬하고, 상을 주어야 정상(正常)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차별금지법' 이 제정된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마치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방송한 것처럼 몰아서, 방송을 위축시키려는 결정을 한 방송심의소위원회들은 교체해야 하며, 건전한 상식과 방송법에 충실한 사람들을 그 자리에 세워야 한다.

방송이 객관성과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이를 제재하고 바로 잡아야 할 방통심의위가 오히려 바른 방송을 하고, 종교 방송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방송하는 기독교계 방송에 정치적인 압력을 넣으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다.

## 동 정

### 김준용 원장 나눔 유공자 선정

보아스사회공헌재단이 지난 13일(금) "협력병원인 수원 수병원의 김준용 대표원장이 '2020 사랑의 열매 나눔 유공자' 로 선정되어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준용 원장은 2015년부터 지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지원을 이어왔다.

### 스켈레톤 윤성빈 천만 기부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는 지난 10일(화) 윤성빈 선수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 을 앞두고 학대피해아동을 위해 1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윤성빈 선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스켈레톤 국가대표 선수다. 이번에 전달된 기부금은 학대피해 아동의 심리치료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 오윤아 장애아들 통해 기도

'한 번 다녀왔습니다' 의 주연이며 '신상출시 편스토랑' 에서도 활약하고 있는 배우 오윤아(강남중앙침례교회 집사)가 지난 8일(주일)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0 다니엘기도회' (이하 다니엘기도회)에서 간증했다. 오윤아는 "민이 같은 친구를 보면 따뜻하게 안아주면 그만큼 순수한 친구들이 없다. 자폐아이들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 한기총 김현성 직무대행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직무대행으로 법원에서 선임한 김현성 변호사(법무법인 동백)가 "금주 내로 직무대행으로서 함께 일할 임원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성 직무대행은 지난 9일(월) 오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게 주어진 소임은 '한기총 정상화' 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절치를 구상 중이다."라고 전했다.

포커스

제성호 교수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충신교회 장로

# 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한국교회의 대응 ③

ㅇ '분류할 수 없는 성' 의 도입은 제3의 성인 젠더(Gender)를 명시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

- 생물학적 성에 기반하여 여성과 남성만을 인정하는 현행 헌법과 배치

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가족 및 가구의 형태 및 상황' 등을 차별금지사유로 명시

ㅇ장혜영 의원안 제3조 제1항 제1호는 동성애를 포함하는 '성적 지향' 과 성별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성별 정체성', 그리고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

- 국가인권위원회안의 제3조 제1항에서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과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

- '성적 지향' 과 '성별 정체성' 을 이유로 ① 고용, ②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③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④ 행정·사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이용의 영역에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

ㅇ아울러 동성애·양성애·무성애 등 성적 지향과 성 전환 등을 이유로 한 구별·배제 및 반대·비판 등을 차별로 규정

- 이에 따라 2016.5. 뉴욕시 인권위원회가 제시한 31개 성별 정체성을 모두 법적으로 동등하게 인정할 의무 발생

- 차별금지 사유로 '성별 정체성' 포함 시 성전환자 뿐만 아니라 남성의 외관을 가진 자가 자신을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화장실 등 시설 사용에 있어 여성용을 이용하는 것을 저지한다면 차별에 해당할 소지

ㅇ '가족 및 가구의 형태 및 상황' 으로 인한 차별 금지는 동성애가족, 양성애가족(한 집안 내 일부다처 또는 일처다부), 사람과 동물과의 가족관계 형성 등을 백안시하고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

-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의 결합을 혼인으로 간주하는 현행 헌법과 배치되며, 현재의 가족 윤리를 파괴하는 요인으로 작용

※ 이는 '동성혼 합법화' 및 일부다처제 등의 사회적 용인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다. 성별등을 이유로 한 '적대적·모욕적 환경 조성' 행위 규제

ㅇ장혜영 의원안 제3조 제1항 제4호는 '성별등을 이유로 적대적·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 를 규율

ㅇ한편 국가인권위원회안 제2조 제7호는 '괴롭힘' 이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

- 적대적, 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을 야기하는 행위

-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

ㅇ이처럼 차별금지법안에서는 '적대적', '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의 조성이나 '혐오적' 표현 등 불확정 개념을 사용

- 이 같은 불확정 개념의 사용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괴롭힘' 의 존재가 차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동성애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또는 판사(특히 동성애에 관대한 판사)의 자의적 판단에 좌우될 가능성 다대

※ 차별금지법 적용에 있어서 최근 젠더 분야에서 힘을 얻어가고 있는 '피해자 중심주의' 를 띠를 경우, 가해자의 주장(적대적, 위협적, 모욕적, 혐오적이 아니었다거나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 희박

라. 성별등을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 표시' 및 조장하는 광고 행위 규제

ㅇ장혜영 의원안 제3조 제1항 제5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 를 차별로 규정하고 규율

- 국가인권위원회안 제3조 제5항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 또는 조장하는 광고 행위' 는 차별로 본다고 규정

ㅇ이는 직접적으로 표현의 자유, 특히 언론·방송의 자유 및 광고의 자유와 충돌할 소지

마. 성별등에 의한 교육내용 차별 금지: 비차별적 동성애 교육 실시 의무

ㅇ장혜영 의원안 제32조(교육내용의 차별 금지)는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 교육목표, 교육내용, 생활지도 기준이 성별등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는 행위

- 성별등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행위

-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내용으로 편성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

- 그밖에 교육내용 등에 있어 성별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현존하는 차별을 유지·심화하는 행위

ㅇ국가인권위원회안 제27조(교육내용에서의 차별금지)도 위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

- 다만 장혜영 의원안의 네 번째 행위는 차별금지 행위에서 제외

ㅇ상기의 '성별등에 의한 교육내용 차별 금지' 는 성교육을 실시할 경우 성교육 내용에 동성애를 포함시켜야 할 뿐만 아리나, 동성애, 양성애 등을 이성애와 구별하지 않고 '똑 같이 자연스러운 것(혹은 인간적인 선택의 대상)' 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 성별등에 대해 교육기관장, 성교육 주무책임자나 실제 교육자의 주관이나 편견이 작용하면 안 됨

ㅇ이 밖에도 건전한 이성애를 제외한 다른 성적 지향을 나쁘게 볼 경우 인권 및 성평등 감수성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평가되어 향후 '인권교육' 혹은 '젠더교육' 의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

바. 징벌적 손해배상

ㅇ장혜영 의원안 제51조 제1항 및 국가인권위원회안 제34조 제1항은 차별행위를 한 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을 규정

- 손해 입증 불능시 차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장혜영 의원안 제51조 제2항 및 국가인권위원회안 제34조 제2항)

ㅇ아울러 장혜영 의원안 제51조 제3항 및 국가인권위원회안 제34조 제4항은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가해자에 대해 추가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을 하도록 명시

- '차별행위의 고의성, 지속성·반복성, 보복성, 피해의 규모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 국가인권위원회안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로 규정

-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하한은 500만원

사. 불이익조치 금지 및 벌칙

ㅇ사용자등(사용자 및 임용권자, 교육기관의 장)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및 그 관계자가 피해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진정 또는 소의 제기,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장혜영 의원안 제55조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안 제37조 제1항).

- 단 국가인권위원회안의 경우 '소의 제기' 대신 '진술' 을 명시

※ 차별금지법안에서 유일한 '범죄유형' 으로 명시

ㅇ만일 사용자등이 위와 같은 의무에 위반하여 불이익 조치를 취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대상(장혜영 의원안 제56조)

- 이에 비해 국가인권위원회안 제38조는 사용자등이 불이익 조치를 취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토록 하는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

ㅇ나아가 불이익조치와 관련해서 양벌규정을 설치

-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상기와 같은 불이익조치를 취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장혜영 의원안 제57조 제1항)

-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불이익조치를 취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장혜영 의원안 제57조 제2항)

※ 국가인권위원회안 제39조(양벌규정)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벌금형을 부과한다" 고 명시

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확대

ㅇ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침해 관련 진정 접수, 조사, 조정, 의견제출, 관계기관에 대한 권고 등의 권한을 행사

- 현행법상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인권 관련 조사 및 권고기관에 불과

ㅇ그러나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여 조사한 후 해당 차별행위에 대해 ① 시정명령, ② 이행강제금 부과 및 불이행시 계속적 부과, ③ 피진정인에 대한 소송지원 등의 권한을 새로이 갖게 됨.

- 시정명령으로 차별행위의 중지, 피해의 원상회복,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시행 가능(장혜영 의원안 제42조 제2항)

- 시정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장혜영 의원안 제44조 제1항)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내용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장혜영 의원안 제44조 제3항)

- 위원회는 차별행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응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소송을 지원(장혜영 의원안 제49조, 국가인권위원회안 제32조)

ㅇ이상과 같은 권한 및 기능 확대는 막강한 국가권력기관화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력·예산 및 업무의 상당한 확대를 수반할 것으로 예상

2. 예상 문제점

가. 기본적 인권의 중대한 침해

ㅇ대한민국 헌법은 기본권 중에서도 '정신적 자유권' 을 특별히 보호

- '정신적 자유권' 은 인간의 존엄권 보장, 인간성과 인격적 가치의 발현, 개인의 행복 추구에 있어 필수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바탕을 이루기 때문

- 사상·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이 정신적 기본권에 포함

- 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말하며, 언론의 자유는 다시 의사표현의 자유, 의사전달의 자유, 알 권리(정보접근권), 정보유통의 자유(온라인 및 오프라인), 광고의 자유, 언론·방송사의 자유(언론·방송사의 설립, 편집 및 보도의 자유, 취재원 보호의 자유 등)을 포함

ㅇ차별금지법은 위와 같은 정신적 자유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자유, 고용(근로계약관계 설정)의 자유, 교육내용 결정의 자유 등을 침해할 가능성 농후

(1) 종교의 자유 침해

ㅇ차별금지법은 종교의 자유 중 특히 신앙의 자유, 종교행사의 자유, 기독교 교리 강론의 자유, 기독교 교육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할 가능성 다대

- 종교의 자유는 ① 신앙의 자유(신앙을 가질 자유, 종교적 신념 고수의 자유, 개종의 자유, 정통적 교리 수호의 자유 포함), ② 종교적 신념을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 ③ 종교행사의 자유(예배 등 각종 종교행사), ④ 종교법 제정의 자유 ⑤ 종교적 자율권(치리의 자유 포함), ⑥ 종교교육의 자유, ⑦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⑧ 선교의 자유 등을 포함

목양칼럼

이효상 목사 // 근대문화진흥원장, 한국교회건강연구원장

# 쓰레기 대란, 지구를 살려라

해를 거듭할수록 환경오염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쓰레기 문제다.

필자가 자치위원으로 있는 남양주시가 인천에 매립하는 년간 쓰레기는 총 1,200만톤이다. 이미 초과됐다. 패널티(penalty)가 생각보다 만만찮다. 문제는 주민들이 쓰레기를 맘대로 버릴 수 있지만 업체가 더 이상 가져가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남양주시는 쓰레기 20% 줄이기를 시작했다. 동별로 30%를 목표로 한다. 쓰레기를 최소화하려는 '쓰레기와의 전쟁' 이다. 그래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아이스팩(ice pack)과 스티로폼(styrofoam)의 분리수거이다. 남양주시는 아이스팩 5개를 모아오면 10ℓ짜리 종량제 봉투를 주는 보상 수거제를 실시했다. '아이스팩' 이 '나이스팩(nice pack)' 이 되도록 하는데 성공했다. 주민센터가 자발적 캠페인을, 주민자치위원들이 앞장 서 전개하며 아파트 카페에 아이스팩 분리수거의 글을 올리는 등 독려하다 보니 다산동이 전국적으로 1위가 됐다.

그렇게 해도 매주 아파트에는 일회용 쓰레기와 프라스틱(plastic) 등이 산더미처럼 쌓여지고 있다. '쓰레기 대란' 우려는 전 세계적이고 전 지구적 문제가 됐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배달 음식 주문량이 늘자 일회용품 사용도 함께 증가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플라스틱류 폐기물은 하루 평균 848t(톤) 발생했다. 1년 전(734t)보다 15.6% 늘어난 수치다.

버려진 일회용, 아이스팩의 미세분자, 플라스틱들은 어디로 갈까? 최근 일상에서 마시는 물과 갑각류, 맥주, 소금 등을 통해 매주 신용카드 한 장 무게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다는 믿기 힘든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 횟수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생산, 운반, 소각 시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대기, 토양을 오염시켜 환경오염을 더욱 악화시키고 생태계를 교란하고 면역체계를 무너뜨린다. 암 발생 확률도 높아지고 있다.

세계자연기금(WWF)에 따르면 연간 800만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다로 유출되면서 가장 큰 문제는 흘러간 플라스틱 폐기물 때문에 해양 동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 등이 지난 6월 충남 서천의 국립생태원내 부검실에서 바다거북 해부를 진행했는데 소장, 내장, 대장을 부검한 결과 비닐쓰레기가 나왔다. 이틀 동안 진행된 검사에서 바다거북 3마리의 몸 속에서 24개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견되기도 했다.

세계자연보호기금(WWF, World Wide Fund for Nature)과 호주 뉴캐슬 대학이 올해 발표한 '플라스틱의 인체 섭취 평가 연구' 에 의하면 평균 한 사람당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 2000여개를 매주 섭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세 플라스틱은 통상 크기가 5㎜ 이하인 작은 플라스틱을 통칭한다.

이제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인줄 알고 삼킨 어류가 우리의 식탁에 오를 가능성은 매우 높다. 여기에 환경호르몬을 배출해 인류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 우리도 매주 무게로 따지면 5g으로 신용카드 한 장이나 볼펜 한 개를 먹는다는데, 한 달이면 칫솔 한 개 분량인 21g을, 1년이면 250g이 넘는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 셈이다.

이같은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경로는 놀랍게도 우리가 주로 마시는 수돗물을 포함한 식수로, 한 사람당 매주 마시는 물을 통해 미세플라스틱 1769개를 섭취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갑각류에서 182개, 소금 11개, 맥주 10개 등이 미세 플라스틱 섭취의 경로로 밝혀졌다.

창조 환경문제 깊게 보고 멀리보자. 일회용 쓰레기와 플라스틱은 해양과 수로를 오염시키고 해양생물을 죽음으로 몰아갈 뿐 아니라 인류도 위협하고 있다. 플라스틱을 먹지 않으려면 매년 수백만 톤의 플라스틱을 자연에 버리는 일부터 막아야 한다. 인류가 촉발한 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이다. 지구가 쓰레기장이 되고, 인간이 만들어낸 생성물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플라스틱 대량생산 60여 년 만에 미세플라스틱 가득 찬 바다, 바다생물은 먹이로 착각해 먹고 인간은 그들을 먹고 그렇게 지구는 '플라스틱 행성' 이 되어간다.

환경 파괴로 코로나가 생기고 인간의 복지와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창조세계를 돌보기 위해 친화적인 환경 정책과 환경을 지키는 노력과 생활 방식을 채택할 듯 싶다. 우리가 받은 세상을 보존하고 건강한 사회를 유지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이 인간의 생존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창조세계의 자원들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일회용으로 낭비하는 것은 가능한 피하면 좋겠다. 새로운 상품들을 사 냉장고나 집에 쌓아두고 싶은 유혹이나 압박을 거부하는 자족한 삶을 살면 어떨까. 어차피 나그네인생인데 좀 부족한 듯 사는 것도 좋을듯 하다. 개인의 행동이 큰 영향을 끼치든 말든 상관없이 나머지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에 충실했으면 한다. 나와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것이 에코패밀리(ecofamily)다, '에코패밀리' 는 지구를 살리는 환경실천을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가족을 말한다. 배운 것을 실천하며 이웃에게 전파하고 모두가 에코패밀리가 되는 것을 꿈꾸어 본다.

일회용품과 프라스틱 사용을 줄이자, 생활 쓰레기를 최소화하며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자발적 주민 참여 환경운동은 이제 시작이다. 생활 속에서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면 음식 배달시 일회용품을 최소화 한다. 시장을 볼 때, 조금 불편할지라도 가게에서 상품을 담아주는 일회용 비닐봉지를 거부하거나 장바구니와 일회용 컵 대신텀블러를 사용한다면 환경을 살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정부는 개인과 사업체가 환경 친화적 실천을 채택하고, 창조 세계에 심각하게 해를 입히는 행동은 하지 않도록 권해야 한다. 우리사회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주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이 시급하다. 또한 개인과 지역사회나, 교회 스스로가 적절한 노력을 모색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세계를 잘 보존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하는 만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과 지역사회 시민단체(NGO)들의 관심과 참여,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환경' 은 좋은 말이 아니라 좋은 행동이다. 지역을 건강한 사회로 만들고 생태 환경을 회복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행동하는 것은 여간 어색한 일이 아니다. 또한 나 혼자 이렇게 한다고 될까란 의문이 들기도 하고, 쉬 주저하곤 한다. 힘을 내서 시작해야한다. 가족과 이웃과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고민해보고 하나씩 실천하면서 말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창조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창조세계의 지킴이로 부름 받은 소명을 가지고 오늘도 올바로 실천해 보려한다.

# 낙태죄 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우려 표명

## "태아의 생명권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우선한다"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은 '일명 낙태죄 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한국교회총연합의 입장' 을 지난 11월 9일 밝혔다.

한교총은 "인간의 자기결정권은 자신 혹은 타인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허용돼야 하며, 태아는 어머니의 보호 아래 있다 하더라도 별개의 생명체로서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며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낙태와 관련된 조항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이 개정안이 한국사회에 생명경시풍조를 조장하는 잘못된 결과를 낳을 것이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강력하게 반대한다" 고 전했다.

한교총은 이러한 입장에 대한 이유로 "태아의 생명권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우선한다" 며 "기독교는 생명의 조성자, 주체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생성 중에 있는 태아도 완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간주하며 낙태는 죄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고 했다.

또한 한교총은 "임신 14주를 기준으로 하는 낙태 전면 허용을 인정할 수 없다" 고 했다.

한교총은 "의료기술의 발달은 태아가 임신 12주가 되면 뇌와 심장이 완성돼 이미 인간의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며 "현재 의료계 통계에 의하면 임신 14주 이내의 낙태가 전체의 97%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개정안은 낙태의 전면적 허용에 가깝다고 하기에 이에 동의할 수 없다" 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한교총은 "사회·경제적 이유에 기한 낙태의 허용을 인정할 수 없다" 고 했다.

한교총은 "사회·경제적 사유의 개념과 범위 자체가 법리적 관점에서 모호하고, 사유에 대한 충족 여부도 확인하기가 어렵다" 며 "또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는 낙태의 전면 허용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성 도덕의 타락과, 생명경시 풍조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기에 동의할 수 없다" 고 했다.

특히 "대안 입법을 위한 종교계, 의료계, 법조계, 여성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라" 고 했다.

한교총은 "정부 당국이 헌법재판 소 결정 이후 지금까지 낙태죄와 같은 인간의 생명에 관련한 중요한 법을 개정하면서 종교계, 의료계, 법조계, 여성계 등의 광범위한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는 진지한 노력을 보여주지 않은 채 형식적인 절차상 요건을 구비하는데 급급한 것은 지극히 유감이다" 라며 "정부 당국은 지금이라도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낙태에 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고 밝혔다.

끝으로 한교총은 "교회는 낙태를 방조한 책임을 회개하며 낙태를 줄이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고 했다.

한교총은 "교회는 낙태가 사실상 전면적으로 행해지는 현실에 눈감고 '낙태가 죄' 라는 성경의 진리를 담대하게 가르치지 못했음을 반성적으로 성찰한다" 며 "정부와 우리 사회가 미혼모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기 바라며, 적극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고 덧붙였다.

#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인이 되자

## 광주지방회

광주지방회(회장 최정식 목사)는 지난 11월 10일(화) 오전 11시 무등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헐몬 기도원에서 광주지방회 주관으로 산상 기도회를 가졌다.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영호 목사(은혜의강물교회)가 욥 42:1-6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수준'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보이는 신앙보다 인간의 내면에 깊이 잠재해 있는 죄까지 만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귀로만 듣는 신앙에서 벗어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자"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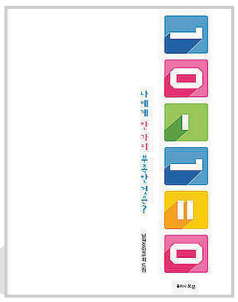
이어 진행된 기도회는 그동안 '코로나 19'를 핑계로 게으르고 나태해진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 교단과 지방회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한 후, 지방회장 최정식 목사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회원들을 격려하고 성령충만한 능력 있는 목회자들이 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증경회장 주덕영 목사(나주순복음교회)의 축도로 산상기도회를 마치고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김정순 목사(은혜복음교회)가 준비한 별미로 식사를 함께하고, 최애자 장로(복된교회)가 섬겨준 따뜻한 차를 마시며 교제를 나눈 후 주변을 산책하며 만추의 향연에 젖어 영육의 쉼을 가졌다.

화제의 신간 / '서정복 목사의 세번째 책'

##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10가지 신앙원리

## 10-1=0 나에게 한가지 부족한 것은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담임)

묻습니다. 10에서 하나를 빼면 수학적으로는 9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전혀 아닙니다. 10에서 하나를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10가지 잘했는데 하나를 실수하면 모두가 무효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요? 10-1=0입니다.

집을 지으려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연장과 도구와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차근차근 쌓아올리다 보면 계획하고 구상했던 대로 집이 완성됩니다. 시간이 급하다고 해서 어느 한 과정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성도는 누구나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생사화복, 흥망성쇠로 인해 희로애락이 교차합니다. 그러다보니 때로는 택함을 받은 제자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삶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이 때 10-1=0 지침서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나를 나 되게, 나를 제자 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제자가 되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동역자를 섬기며 세상으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살아가도록 도울 것입니다.

아무쪼록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때가 가까웠으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신령한 집을 지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미소 짓는 남원중앙교회**
**서정복 담임목사 063)625-0690**


사단법인 아산시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
본부장 이두영 목사
실무회장 박노섭 목사
상임회장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고문: 정연창 목사, 강상철 목사, 김소윤 목사, 김형태 목사, 이영한 목사, 임기석 목사, 연용희 목사
자문위원: 이명수(국회의원), 강훈식(국회의원), 오세현(아산시장), 김영애(아산시의장), 김황구(아산경찰서장), 아산교육장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
본부장: 이두영 목사 실무회장: 박노섭 목사 사무총장: 안흥규 목사 총무: 정진학 목사
상임회장: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공동회장: 진등용 목사, 노성웅 목사, 이두영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도승현 목사, 임은석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정훈화 목사, 박노섭 목사, 황창익 목사, 심우섭 목사, 최문기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목사
지도위원: 박차영 목사, 이광로 목사, 서석웅 목사, 방연식 목사, 박판용 목사, 최성덕 목사, 김병철 목사, 표의성 목사, 김관호 목사, 김득수 목사, 박봉순 목사, 송화섭 목사, 이재구 목사, 최재희 목사, 박신석 목사, 엄태일 목사, 최상근 목사, 황하성 목사, 최순식 목사, 김완진 목사, 차추병 목사
부회장: 홍석용 목사, 임정대 목사, 이덕희 목사, 정병환 목사, 길성권 목사, 곽일귀 목사, 장헌원 목사, 고영기 목사, 김주섭 목사, 이재두 목사, 김현준 목사, 박덕수 목사, 구자범 목사, 이기언 목사, 안덕근 목사, 유현희 목사
사무총장: 안흥규 목사 총무: 정진학 목사 서기: 최순식 목사 회계: 곽인숙 목사 재무: 이은혜 목사, 정수희 목사 회원: 아산시 400교회
상임총무: ,박성민 목사, 이석주 목사, 이춘호 목사, 임해성 목사, 정미숙 목사
후원회 회장: 한상문 장로
후원회: 배성한 장로, 김영식 장로, 박동국 장로, 장상근 장로, 오좌근 장로, 김도식 장로, 김수흥 장로, 임도순 장로, 이익상 장로, 황의덕 장로, 신요섭 장로, 이세영 장로, 김현우 장로, 박해서 장로, 한장섭 장로, 이창식 장로, 광웅기 장로, 차영환 장로, 김기운 장로, 박노완 장로, 김현진 장로, 한상문 장로, 정진경 장로, 이희열 장로, 박종탁 장로 (外 각 교회 장로)
후원계좌: 국민은행 450901-01-430312 (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70인 천년초식품

백년초는 멕시코 산으로 독성이 있습니다.
천년초는 토종 한국산으로 독성이 없습니다.
천년초와 백년초는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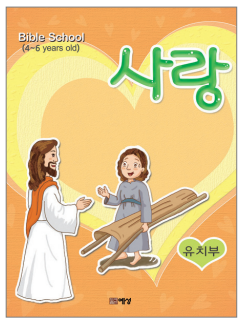
천년초의 효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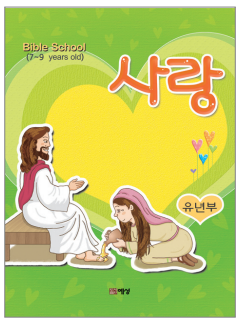
1)페놀성물질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쥐실험)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계특허냄)
2)플라보노이드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탁시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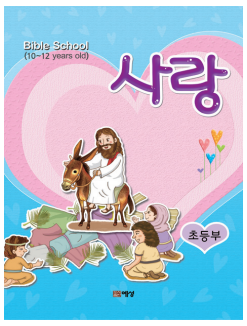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찧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 교단공과 신청




## 출판헌금

① 유치부학생용, 유년부학생용, 초등부학생용, 아동부교사용(유치, 유년, 초등부 합본) : 각 5,000원
② 아동부 설교파워포인트 USB : 10,000원
③ 성인용 : 8,000원

##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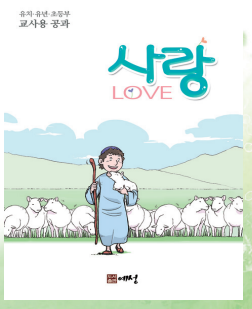
아동부 공과교재
① 설교와 공과가 연계되어 있음
② 공과는 성경이야기와 활동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③ 영어가 삽입되어 있음

## 공과신청

① Fax : 02)2677-5181, 031)441-1793
② e-mail : aogk@aogk.org
③ 입금계좌 : 농협 355-0053-3758-93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은혜와진리교회

## 문의

전 화 : 02)2675-5181~3, 031)447-2922




ASSEMBLIES OF GOD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대표고문 조용목 목사 (정책위원장)
교단총회장 신재영 목사 (총회장)
지도고문 정부용 목사 (대림벧엘교회)
지도고문 엄기설 목사 (은혜와찬양교회)
회장 김기진 목사 (제천순복음양문교회)
상임부회장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부회장 최정식 목사 (순복음복된교회)
부회장 김바울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부회장 김견수 목사 (제주한마음교회)
상임총무 오세준 목사 (순복음참좋은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교단산하 개교회 및 도시, 농·어촌, 산간벽지,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비량부흥성회를 개최하고 있사오니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는 부흥사회로 연락주시면 부흥사회에서 **완전 자비량**으로 부흥회를 인도해 드립니다.

## 2020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대표고문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증경총회장 김상용 목사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증경총회장 유봉수 목사 (은혜와사랑의교회)
증경총회장 진등용 목사 (새소망교회)
증경총회장 김용덕 목사 (영동제일교회)
증경총회장 임종달 목사 (진주은혜와진리교회)
증경총회장 최광덕 목사 (일산은혜교회)
증경총회장 이창제 목사 (진부제일교회)
증경총회장 김인규 목사 (은혜와평강교회)
증경총회장 김인찬 목사 (청신교회)
증경총회장 김양인 목사 (목양제일교회)
직전총회장 임웅재 목사 (산정리순복음교회)
총회장 신재영 목사 (새김천교회)
지도고문 정부용 목사 (대림벧엘교회)
지도고문 엄기설 목사 (은혜와찬양교회)
증경회장 김희태 목사 (간현교회)
회장 김기진 목사 (제천순복음양문교회)
상임부회장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부회장 최정식 목사 (순복음복된교회)
부회장 김바울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부회장 김견수 목사 (제주한마음교회)
상임위원 임영광 목사 (천안순복음중앙교회)
상임위원 오승욱 목사 (천안서북교회)
상임위원 황용연 목사 (은혜와평강교회)
상임위원 김병묵 목사 (금산순복음교회)
상임위원 정석현 목사 (평강교회)
상임위원 백영자 목사 (녹동순복음교회)
상임위원 조병희 목사 (기장순복음교회)
상임위원 김종연 목사 (의정부은혜교회)
상임총무 오세준 목사 (순복음참좋은교회)
상임부총무 조은혜 목사 (순복음빛된교회)
실무총무 정광호 목사 (동문순복음교회)
실무총무 윤혜영 목사 (순복음주찬미교회)
실무총무 조선남 목사 (대림벧엘교회)
실무총무 김병호 목사 (순복음행복한교회)
실무총무 박홍렬 목사 (오성사랑교회)

실무총무 성기찬 목사 (동울산순복음교회)
실무부총무 김남수 목사 (밝은빛교회)
실무부총무 김연옥 목사 (행복한선교교회)
실무부총무 김명주 목사 (순복음열방교회)
실무부총무 임형순 목사 (순복음아멘교회)
서 기 조길수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재 무 최남성 목사 (동강순복음교회)
감 사 윤성수 목사 (진주은평교회)
정회원 정환무 목사 (순복음빛된교회)
정회원 권택선 목사 (순복음하은교회)
정회원 이화숙 목사 (전주순복음우리교회)
정회원 홍현자 목사 (사랑과평화교회)
정회원 최승수 목사 (순복음소망교회)
정회원 주창민 목사 (순복음벧엘교회)
정회원 배용환 목사 (순복음전원교회)
정회원 옥보에 목사 (소망농아교회)
정회원 우광덕 목사 (신한복지교회)
정회원 기호선 목사 (괴산순복음교회)

정회원 정에스더 목사 (예수향기기도원)
정회원 이형은 목사 (은혜로교회)

ASSEMBLIES OF GOD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 문의 | 회 장 김기진 목사 HP : 010-4112-9313
상임총무 오세준 목사 HP : 010-5041-3411

## 감사원의 보고서에 나타난 월성1호 폐쇄과정 대한 샬롬나비 논평

# "산업부는 경제성 평가 착수도 하기 전에 원전 졸속 가동 중지를 결정하였다"

지난 2020년 11월 5일(목) 검찰이 감사원이 밝힌 월성1호 조기폐쇄결정에 대한 경제성 조작 혐의 등과 관련해 검찰이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올바른 조치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 졸속으로 시행된 탈원전 정책은 그동안 최고의 원전 기술을 가졌다는 원자력에 대한 자부심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분으로 2016년 12월 18일 부산에서 상영된 원전 재난 영화 '판도라'를 볼 때 머리말에 '폭탄 하나 매달고 사는 것과 같다. 판도라 상 자체를 치워야 한다'는 문구를 보고 탈원전 국가를 결심했다고 한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이루는 에너지 정책이 대통령의 재난 참사 영화 한편 감상에서 결정되었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에서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기존 원전 수명 연장 불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선언하면서 탈원전 발동이 걸렸다. 그 세 가지 가운데 월성 1호기 폐쇄는 법률적 조치까지 완결된 상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가 조작·왜곡됐고 한수원 이사들은 거수기 역할로 배임(背任)에 동조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너무나 졸속으로 진행되어 경제성에 대한 충분한 연구없이 몇몇 탈원전 단체들의 입김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이번 1년이나 끌던 감사원의 감사는 이러한 정부의 탈원전 결정이 과연 투명하고 합당한가 하는 질문을 야기시킨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 10월 20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론을 공개했다. 이번 감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산업부가 청와대의 기류를 감안해 조기 폐쇄라는 답을 미리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식으로 경제성 평가를 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월성1호기 감사 결과를 보니 백운규 산업부장관은 경제성 평가 착수도 전에 폐쇄 결정을 하였다는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이런 저항은 처음 봤다"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토로는 현 정권의 불법적인 폐쇄결정 과정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는 국정 운영이 투명해야 하는 자유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읽으면서 샬롬나비는 이번 월성1호기 폐쇄결정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천명하면서 이러한 폐쇄결정 과정에서 일어난 다음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검찰의 조사를 요구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는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데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맞추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치를 왜곡해 폐쇄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2018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보좌관에게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이냐"는 질문을 던진 전후로 파악된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가동 중단 지침을 내린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보좌관에게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이냐"고 물었다는 말을 담당 과장에게서 전해들은 직후였다고 한다. 백 전 장관은 이에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과 함께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백 전 장관은 2018년 4월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한수원 이사회 결정이 나오면 지체 없이 즉시 가동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했다. 이러한 백 장관의 결정이 사실이라면 이는 투명하고 과학적으로 정책을 집행해야할 자유민주국가의 주무장관의 책임있는 행동으로 결단코 볼 수 없다.

**2. 산업통산자원부는 원전 폐쇄의 근거로서 경제성을 낮추도록 조작했다.**

산업통산자원부(산업부)는 지속적으로 회계 법인과 한수원을 압박해 경제성을 낮추도록 했다고 한다. 2018년 5월 4일과 11일 산업부는 삼덕 회계법인과 면담하면서 원전 폐쇄의 근거로서 경제성을 낮추기 위해 경제성 평가의 기초가 되는 원전이용률과 전력판매 단가를 낮추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월성 원전의 경제성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감사원은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3. 산업부는 지속적으로 한수원에게 조기폐쇄를 압박했다.**

산업부는 2018년 초 월성 1호기 폐쇄를 차일피일 미루는 한수원을 지속적으로 압박했다. 산업부는 특히 2017년 문 대통령의 탈(脫)원전 선포 후 1주년이 되는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폐쇄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2018년 3월 2일 산업부 A 과장은 한수원 측에 "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 1주년 이전에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며 "산업부에서도 관심이 많은데 한수원 직원들이 인사상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는 사실상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4. 산업부 직원은 대통령 눈치를 보고 한수원 직원을 조직적으로 압박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대통령의 눈치를 본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지속적으로 압박한 내용이 상세히 드러나 있다. 감사원은 한수원이 애초 월성 1호 조기 폐쇄가 아닌 계속 가동을 희망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실무진도 조기 폐쇄보다 한수원 이사회 의결 후 일정 기간 연장 가동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2017년 12월과 2018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비서실과 백운규 당시 장관에게 보고했다. 청와대 비서실도 처음엔 산업부 방침에 호응했다고 한다. 이는 중대한 사실이다. 그런데 누군가 압력을 가해 이를 즉각 폐쇄로 뒤집은 것이다.

**5. 산업부는 현 정권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청와대 보고자료 등 444개 파일을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산업부가 2018년 감사원 감사를 받는 와중에 현 정권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청와대 보고자료 등 444개 파일을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탈원전 관련 각종 조작이 들통날 것이 우려되자 산업부 공무원들이 회의를 갖고 자료 삭제를 결정했다고 한다. 조직적인 증거 인멸, 명백한 감사 방해 행위다. 자료 삭제는 담당 공무원이 일요일이던 작년 12월 1일 밤 11시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2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파일 복구가 되지 않도록 원래 파일명 등을 수정해 다시 저장한 뒤 삭제하는 방법까지 동원됐다고 한다. 파일 삭제로는 모자라 파일이 든 폴더까지 통째 삭제하기도 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대담하고 철저하게 증거 인멸을 했다. 독재 정권 시절에도 보기 힘들었던 일이다.

6. 산업부 공무원들은 심야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 파일 이름을 바꾼 뒤 삭제 등 각종 서류를 조작했다고 한다.

야밤에 공무원들이 원전 폐쇄결정에 대한 각종 서류를 폐기한 사건은 심각하다. 검찰이 이러한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 산업부 공무원들은 다른 직원의 눈을 피해 일요일 밤 11시 등 심야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 파일 이름을 바꾼 뒤 삭제하는 등 복구 불능 상태로 '증거 인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엘리트 공무원들이 감사 방해를 위해 범죄 집단처럼 움직인 것이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감사를 방해한 산업부 국장과 직원들에 대해선 중징계를 요구했다

**7. 이상의 감사원 보고가 지적한 산업부의 폐쇄과정 결정의 조작, 이를 은폐하기 위한 파일 및 서류 폐기는 검찰수사에서 그 진면목이 밝혀져야 한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서 경제성 평가가 왜곡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월성 1호기는 7000억 원을 들여 사실상 새 원전으로 보수했으나 문 정부는 탈원전한다며 갑자기 폐쇄시켰다. 그때 든 이유가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감사 결과 산업부와 한수원은 그동안 실제 팔아온 원전 전기 판매 단가보다 15%나 낮은 단가를 적용해 판매 이득을 낮게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월성 1호기를 폐쇄한 한수원 스스로가 당시 이사회 자료에서 월성 1호기 안전성에 대해 '계속 운전 주기적 안전성 평가, 후쿠시마 후속 안전점검 및 개선 대책, 스트레스 테스트 평가 및 안전 개선 결과 모두 만족·적합으로 나왔다'고 보고한 바 있다.

결국 산업부의 경제성 평가는 조작이었고, 안전성은 문제없다는 판단이었으며, 지역 수용성은 모든 원전이 공통으로 처한 현실이었다.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해야 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도 없었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멀쩡한 원전을 폐쇄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검찰은 ① 월성1호기 폐쇄 증거 삭제 및 감사 방해 윗선 지시, ② 청와대가 경제성 저평가 및 즉시 폐쇄 지시 내렸나, ③ 월성 폐쇄 결정한 한수원 이사진 업무상 배임 여부를 수사로 밝혀내어야 할 것이다.

**8. 월성 1호기 폐쇄과정에서 지역수용성 결정을 위해 두 번의 주민과의 간담회 밖에 하지 않았다.**

월성1호기 재가동 주민 홍보에 22억원을 쓴 정부가 조기폐쇄 결정 때는 간단한 간담회 두 차례로 주민 의견 취합 절차를 대체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가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근거로 감사원이 지적한 경제성 외에도 주민수용성과 안전성을 제시했지만 이중 주민수용성이란 기준을 평가할 근거조차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세 가지 기준에서 월성1호기를 폐쇄하는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120만원을 들여 두 번의 주민 간담회를 하고서 주민수용성 여부를 결정했다고 하니, 얼마나 졸속으로 결정한 것인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감사원은 경제성 이외의 두 가지 항목은 감사대상이 아니라서 감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월성1호기 폐쇄 과정 전체에 대한 감사를 통해 졸속폐쇄 결정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하여 조기 폐쇄과정에 있었던 불법을 밝혀내어야 한다. 그리하여 국가경영에 항상 법치와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경영되도록 해야 한다.

**9. 문재인 정부는 감사원 보고서를 계기로 탈원전 정책에서 방향전환해야 한다.**

감사원 감사는 조기 폐쇄 타당성 여부는 감사에서 제외시켰다고 했으나 탈원전 기조의 절차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감사원의 결과 보고서를 계기로 졸속한 탈원전 정책을 중지하고 한울 3,4호기도 보수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재가동되어야 한다. 미국은 현재 가동 중인 원전 96기 가운데 88기가 40년에서 60년으로 수명을 연장했고 4기는 최근 거기서 다시 80년으로 수명을 연장했다. 7000억원을 들여 새 원전처럼 보수한 월성 1호기는 35년밖에 쓰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폐쇄됐다. 문재인 정부는 2029년까지 설계 수명에 도달하는 원전 10기를 모두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전들을 수명 연장해 계속 가동한다면 정부가 100조원 들여 세운다는 태양광·풍력에 맞먹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100조원 이상의 이득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경제적 파산 행위와 같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을 피하기 위하여 원전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일본, 중국, 미국, 독일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서 방향전환하기를 촉구한다.

2020년 11월 9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

긴급진단 이은경 변호사 //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 포괄적 차별금지법, 과연 차별시정이 가능한가? ③

정부 및 민간 영역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고, 재정이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이를 수반하지 않은 '입법의 필요성' 논의는 반쪽짜리 주장에 불과하다. 그런데, 국회는 입법의 여파, 특히 사회적 비용에 대한 기본개념조차 없이 공허하고 추상적인 '차별논쟁'만 벌이고 있다. 국가기관의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 세금이 얼마나 드는지, 기존 시스템을 뒤집을 정도의 국민적 요구가 있는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나. 구체적 법안 내용에 대한 공론화**

전 세계 195개의 국가 중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국가는 35개국 정도다. 국가마다 차별사유 및 영역, 구제조치 등이 다소 상이한 체계를 갖고 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정의당안'과 '인권위안'은 해외 입법례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급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기준점을 높여 협상력을 제고하려는 '앵커링 효과'를 의도한 듯하다. '인권위' 박찬운 상임위원은 "해외의 입법 경험을 참조해 장점을 살렸다. 우리 현실을 고려해 고용형태도 차별사유로 포함했고, 혐오표현 규율도 시대적 흐름을 반영했다. 또 해외 차별금지법이 대개 고용 중심이라면 평등법은 우리 일상의 중요한 모든 영역(고용, 재화·용역, 교육·직업훈련, 행정·사법 서비스)으로 차별금지영역을 확장했다"고 말한다. '차별개념', '차별사유', '차별영역', '차별 및 제재' 별로 구체적 법안 내용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이유다.

(1) 총칙

(가) 차별개념

차별금지법 찬성론은, 각각의 차별사유를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직접차별로,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그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를 간접차별로 보고, 모든 사람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가 차별금지법 제정이라고 한다. 차별은 잘못된 것이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확고한 인식이 사회에 자리 잡는다면 굳이 법을 만들지 않아도 되겠지만, 고용, 재화·용역, 교육·직업훈련, 행정서비스 등 차별영역에서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그리고 '괴롭힘, 성희롱, 차별표시·조장 광고행위' 등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사회 당면 과제라고 주장한다.

'정의당안'과 '인권위안' 모두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 차별표시·조장 광고행위'를 차별 유형으로 보고 있고, 특히 '정의당안'은 두 가지 이상의 차별사유가 함께 작용하여 발생하는 '복합차별'도 규정한다. 일단, 차별이란 개념은 '상대적, 가치적, 유동적'이다. 애초에 절대적인 개념으로 정의할 수 없는 용어다. 그러므로 어느 한 가지 특정가치를 정의로운 것으로 규정하고, 이에 반하는 가치를 차별로 금지하는 것은 아주 어렵고 힘든 작업이다. 특히, 가치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현대 포스트모던 사회는 차별을 정의함에 있어 더욱 엄격한 '사회적 합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직접차별이라는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란 과연 무엇인가? 개념조차 너무 광범위하다. 특히 '구별'은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한다는 것 아니겠는가? 이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평등권에도 반하는 개념은 아닌지 몹시 우려스럽다. 더욱이 차별의 고의는 없을지라도 차별의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까지 금지하는 간접차별은 후술할 '차별구제', '차별제재'까지 고려할 경우 사회적 파장을 여러모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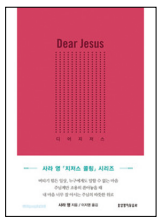
그리고 '직접차별', '간접차별'에 그치지 않고, '괴롭힘, 성희롱, 차별표시·조장 광고행위' 등을 차별개념에 포함한 것은 어떻게 볼 것인가. 특히 '괴롭힘'은 '인권위안'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적대적, 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을 야기하거나,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로 정의하고, '정의당안'이 '성별 등을 이유로 적대적·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이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고통을 겪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주관적인 측면이 너무 강하다. 혹여 본인 주장만 앞세우는 경우, 객관적 사실과 무관하게 가해자로 고통받을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 특정 의견이 일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이유로 대중적 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반대의견을 침묵하게 만드는 '입막이법'이란 점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차별표시·조장 광고행위'는 광고 매체나 방법에 제한이 없으므로, 그야말로 '사상의 자유시장'을 문 닫게 만들 가능성도 있는 조항이다.

(나) 차별사유

'정의당안'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등 23개를, '인권위안'은 "언어", "국적"을 제외하고,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을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으로, "용모 등 신체조건"을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으로,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전과"로, "병력 또는 건강상태"를 "병력"으로 비꾼 21개를 차별사유로 들고 있는데, 모두 말미에 '등'을 붙여 차별항목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

---

## 신간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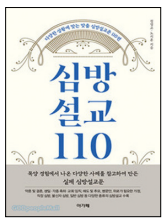


### Dear Jesus 디어 지저스

전 세계 독자들을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이끈 베스트셀러 저자. 결혼 후 남편을 따라 일본 선교를 나갔으나 그곳 생활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거기에 더해 수년간 끊임없이 계속된 건강 문제와 힘든 수술에 그녀는 더욱 지쳐갔고, 자기 내면에 커다란 결핍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녀는 이를 사람들로 채워보려 했으나 가능하지 않았고, 마침내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매일 그분과의 교제를 사모하는 것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이 책은 그녀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결과이다. 일상의 모든 여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질문하고, 성경을 묵상하며 깨달은 내용을 예수님과 주고받는 대화 형식으로 적었다.

저자/역자 : 사라 영/이지영 | 출판사 : 생명의말씀사

발행일 : 2020-10-30 | (105*173)mm 256p | 판매가 :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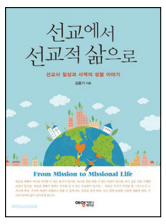


### 심방설교 110

목회자나 교회지도자에게 심방은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갈수록 성도의 가정 심방이 어려워지는 시대지만 꼭 가정심방만 있는 것은 아니기에, 언제 어디서나 심방으로 위로와 격려, 영적 성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는 목양 경험에서 나오는 많은 사례를 참고로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전해, 영적 육적으로 성도를 세우는 데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는 심방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누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이 책이 다양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심방해 그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는 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적용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자 : 정영교,노지훈 | 출판사 : (주) 아가페 출판사

발행일 : 2020-11-13 | (150*220)mm 368p | 판매가 : 20,000원



### 선교에서 선교적 삶으로

오늘날의 선교는 더 이상 특정 선교 단체에 의해서 지속되지 않는다. 지역 교회가 선교하는 시대, 어쩌면 이미 성경이 말하는 바른 선교 모델에 가까워진 것이다. 그래서 선교사는 특정인의 몫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된다. 오늘 우리 각자가 사는 이곳도 그리고 머나먼 타문화도 같은 개념의 선교지다. 만약 복음이 더욱 강조된다면 선교는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것이다. 복음에는 이미 상당히 선교가 강조되어 있기 때문이다.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복음이다. 따라서 예전에 선교해야 한다고 외치던 저자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소모적인 말을 줄여가고 있다고 고백한다. 저자는 선교지인 알바니아에 즐비한 올리브나무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저자 : 김용기 | 출판사 : 예영커뮤니케이션

### 너무 죽고 싶어서 너무 살고 싶어요

명문대 수석 졸업, 대기업 입사, 뛰어난 업무 능력으로 인정받던 20대 직장인. 모태신앙으로 자라 누구에게나 선의를 베풀던 '착한 엄친딸'이 상사들의 시기 질투로 하루아침에 모든 업무를 빼앗기고 부서 내 천덕꾸러기가 되어 1년 동안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다 큰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매일 퇴근 몇 시간 전부터 회사 앞을 지키며 눈물로 기도했다. 중증 우울증에 시달리고, 하나님마저 나를 버렸다는 슬픔과 분노로 피폐해진 그녀의 마음에 "모든 답은 기록된 성경 말씀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왔다. 성경은 그녀에게 이 고난의 이유와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었다. 그녀의 고난은 잘못된 행보를 막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훈련이었다.

저자 : 의연,그림_유세은 | 출판사 : 규장

발행일 : 2020-11-02 | (128*198)mm 256p | 판매가 : 13,000원

# "생명나눔 세상에 전합니다"

## 임직 감사예배 드리며 장기기증 서약식 진행

서울 노원구 소재의 성덕중앙교회(담임 안준혁 목사)에서는 지난 11월 7일(토) 오전 11시 장로·집사·권사 임직기념 감사예배가 드려졌다.

이번 감사예배에는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 목사, 이하 본부)의 사무처장 김동엽 목사를 초청해 장기기증 서약식을 진행했다. 이미 지난 2006년 11월 장로·집사·권사 임직기념 감사예배에 본부를 초청해 장기기증 서약식을 진행한 바 있는 성덕중앙교회는 당시 임직 대상자 및 가족 101명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7일 오전 11시, 성덕중앙교회 예배당에서 진행된 임직예배는 1부 감사예배, 2부 임직식, 3부 나눔, 축하와 감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3부 나눔, 축하와 감사의 시간에는 임직증서 수여와 함께 장기기증 서약식이 진행됐다. 이 날, 임직대상인 36명의 장로, 집사, 권사 등은 안준혁 담임목사로부터 임직증서를 수여받은 후,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했다.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 생명을 나누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장기기증을 약속한 임직대상자들과 성도 39명을 대표해 허명철 장로가 본부 김동엽 목사로부터 장기기증 등록증을 전달받았다.

안준혁 담임목사는 "오늘 임직증서를 받은 분들은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에도 참여했다. 이분들 외에도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증 전달에 이어 본부는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생명나눔 사역에 앞장서고 있는 성덕중앙교회에 감사의 뜻을 담은 '생명나눔교회' 기념패를 전달했다.

본부 이사장 박진탁 목사는 "성덕중앙교회는 임직식이라는 뜻깊은 일에 두 차례나 본부를 초청해 생명나눔 의미를 나눴다."며 "직분을 받는 첫날, 생명을 살리겠다는 귀한 약속을 한 성덕중앙교회의 성도들처럼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문의 :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팀
02-363-3992

# 하나님을 찬양할 때 큰 능력으로 역사

## 한국복음가수협, 대표총재 대표회장 임원 취임감사예배

한국복음가수협회(이하 한가협)는 대표총재, 대표회장 임원 취임감사예배를 지난 10월 31일(토) 오후에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드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사역에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한가협은 대표총재 한경숙 사모, 대표회장 김지혜 목사(주님제일교회), 사무총장 김선초 목사와 임원들이 취임했다.

에바다복찬양의 축하공연(안무 김슬기 목사)에 이어서 드려진 취임예배는 한정수 지도목사의 인도로 총재 손덕 목사의 대표기도와 총재 박정자 목사의 성경봉독, 이아네스 교수의 특송,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원로목사가 시편 115편 17-18절 말씀을 본문으로 '산자와 죽은 자'란 제하의 설교, 서기 이송미 사모의 헌금송, 회장 박일녀 목사의 봉헌기도 순으로진행됐다.

피종진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항상 주관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며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의무가 있다. 죽은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 살아 있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큰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역설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선기 장로, ▲대통령과 정치인을 위하여, 정대수 장로, ▲기독교기관과 대표를 위하여, 김금숙 목사,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한성덕 목사, ▲세계선교와 북한선교를 위하여, 최미영 집사, ▲한국복음가수협회의 성장을 위하여, 김영광 목사가 특별기도를 했다.

한국복음가수협회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에 헌신할 사역자를 발굴하고, 이들을 교육하고 지도하여 찬양사역자를 양성하여 각종 예배 및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나사렛대, '희망장학금' 전달식

## 교수협, 학생들 학업에 도움의 손길 전해

나사렛대학교(총장 김경수) 교수협의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과 힘든 상황에 학생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고자 2천여 만 원의 장학금을 지난 11월 4일(수) 전달했다.

이번에 조성된 장학금은 33개 학과에서 1~3명씩을 선정하여 '코로나19 희망장학금'으로 전달했다. 장학금 기부와 관련한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힘든 시기에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학교생활과 미래의 희망이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교수협의회은 지난 3년간 10억 원 이상의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여 학교에 전달한 바 있다.

한편, 나사렛대 사회복지학부(학부장 성준모)도 지난 11월 3일, 2019년 은퇴한 윤철수, 도종수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기탁했던 기금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학부 학생 32명을 선발하여 640여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윤철수, 도종수 교수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회복지학부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 나가는 데 지원되길 원한다."라며 1500여 만원의 장학금을 기탁 했었다.

사회복지학부는 이 기금으로 2019년에 이어 2020년도에도 학생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했다.

# 기아대책-서울대 코로나19 아동 실태조사

## 아동 10명 중 4명 주중 부모 없이 집에… 식단 부실해지고 불안

국내 최초의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이 11월 2일(월)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아동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 10명 중 4명이 주중 부모 없이 집에서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대책은 지난 8월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 박사진과 함께 취약 계층 아동·청소년 99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시대, 취약가정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일에 부모 없이 아동끼리 집에 있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41.6%, 이틀에 한 번 이상 부모 없이 집에 있는 경우는 21.9%에 달해 코로나19 이후 아동 돌봄 공백 문제를 여실히 보여줬다.

부모 없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동의 불규칙하고 불균형한 식사 문제도 드러났다.

하루 중 식사를 한번도 하지 못하거나 1회에 그친다는 답변이 3.54%로 나타났으며, 주중 과일 섭취를 전혀 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15%, 1회 섭취한 응답자는 16%였다. 급식지원카드를 받는 아동의 경우에는 주 3~6회 정도 편의점 간편식으로 식사를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에 있는 동안 미디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도 커졌다.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시간 조사 결과를 보면 '공부하기(38%)'보다 '영상보기(66%)', '음악듣기(66%)', '게임하기(54%)'를 위해 사용한 시간이 월등히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들의 정서 상태에 대한 조사에서도 아동이 느끼는 불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지쳐감을 느낀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52.7%에 달했으며 친구와 멀어지는 것이 걱정된다는 응답은 37.3%로 나타났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 마스크전도 간증

2020년 1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무슬림 지역 등 여러지역을 다니며 전도와 신학교 강의 등 단기선교를 하였다. 그러다 3월 하순 한국으로 돌아와 자가 격리를 하면서 예배와 성경공부 집회, 전도 등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기자 자유로울 때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었다. 그래서 곧바로 마스크전도(가족세트전도) 178기 훈련과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마스크를 쓰고 전도하는 것이 서로 불편할 것 같았으나 막상 시작하니 박영수 목사의 확신에 찬 강의와 실습, 이수 교수의 양육 말씀, 전도훈련 받은 새벽전도왕 박라미 권사, 영접기도 천병길 부장의 간증 등을 통하여 나 자신부터 서서히 복음에 대한 열정이 불붙는 것을 느끼게되었다.

가족세트전도훈련원장 박영수 목사가 앞장서서 마스크를 쓰고 전도를 하는데, 갈급한 심령, 예비된 영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음을 보았다. 나갈 때마다 결신자가 5명, 7명, 10명 계속 증가하였다.

지난주에는 현장에서 결신하고 바로 교회로 나오는 분이 생겼다. 그분의 집에 찾아가서 기도해드리자 그 남편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과가 있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전 9:14)고 하였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결실도 주시지만, 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값진 씨앗이고, 많은 응답의 역사가 있다.

전도자 자신이 먼저 변화하고 성장하게 되며 담력과 야성을 키우게 된다고 확신한다.

새영광교회(서울도봉구 도봉로110라길9)
세트전도 도봉구지부장
조성문 목사(010-7582-1691)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공 동 성 명 서

# 우리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파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한국교회 교단장들과 한국대학 전, 현직 기독 총장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행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 훼손은 물론 평등 구현과 인권보장에 역행하고 건강한 가치관과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일이므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건강한 미래를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그동안 평화, 사랑, 평등, 인권, 차별금지와 같은 보편적 이미지를 내포한 미명(美名)과 언어 상징의 조작으로 그 속에 반인륜적인 내용과 사상을 담아 사회를 혼란케 하는 일들을 안타깝게 지켜보았다. 동성애자들을 사회적으로 따듯하게 품으면서도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는 대신에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반인륜적인 시도도 있었다. 이번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아름답게 포장된 명칭과 달리 심각한 문제를 담고 있다. 이 법의 내면에 숨어있는 불평등, 차별, 비윤리, 억압의 내용은 인류의 보편적 삶의 가치를 훼손하면서 사회를 분열과 타락으로 점철(點綴)되게 할 것이다.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흔히 신앙의 자유를 일컫는 '종교의 자유' 보장이 아니라 반(反) 신앙을 강요하며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차별법이다. 이 법은 차별 해소를 통해서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개인의 취향과 자유를 존중한다는 제정 취지의 표면적 선전과 달리,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면서 법의 통제 속에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이념화하며, 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다문화 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난민법, 한부모 가족지원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연령차별금지법,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그런데도, 마치 이 모든 법률을 포괄하려는 듯이 한 법을 제정하여 다양한 개인의 삶을 법으로 규정하고 제재를 가하려는 것은 국가주의나 전체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며 통제하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앞서 만들어진 법을 잘 준수하면서 건강한 사회 윤리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 대신에 도덕성과 윤리성으로 견인해야 할 사안들을 사사건건 법을 제정해서 구속하려는 것은 보편적인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박탈하는 일이다. 주어진 권력과 권한으로 국민을 가르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시도는 자유 민주적 질서를 파괴하는 매우 위험스럽고, 오만한 일이다. 윤리성 회복으로 사회의 건강성을 추구하기보다는 독소 조항을 삽입한 끝없는 법의 제정으로 통제와 복종을 강제하겠다는 편견 가득한 시도는 반드시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한국교회 교단장들과 한국대학 전, 현직 기독 총장들은 신앙의 자유 및 진정한 평등과 기독교 대학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이 법 제정을 계속 시도한다면, 한국교회와 기독 대학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투쟁할 것이다.

2020년 10월 13일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 외 회원 교단장 일동**

**한국대학기독총장포럼 회장 정상운 외 회원 총장 일동**

**한국복음주의신학대학협의회 회장 김근수 외 회원 총장 일동**

**[교단장(총회장, 감독회장) 명단]** 소강석(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신정호(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장종현(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윤보환(기독교대한감리회) 외 24개 교단

**[대학총장 명단]** 강우정(한국성서대학교) 고세진(*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김경수(나사렛대학교) 김근수(칼빈대학교) 김선배(한국침례신학대학교) 김성수(*고신대학교) 김영권(대전신학대학교) 김영만(*전주비전대학교) 김용권(*부산장신대학교) 김윤희(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김재연(*칼빈대학교) 권용근(영남신학대학교) 노세영(*서울신학대학교) 모영기(*동원대학교) 목창균(*서울신학대학교) 문성모(*서울장신대학교) 박노준(안양대학교) 신민규(*나사렛대) 안민(고신대학교) 안주훈(서울장신대학교) 이길형(KC대학교) 이상인(성결대학교) 이은규(*안양대학교) 이정숙(*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이재서(총신대학교) 임승안(*나사렛대학교) 임성택(*KC대학교) 임열수(*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 오덕교(*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정근모(*명지대학교) 정규남(광신대학교) 정상운(*성결대학교) 정인찬(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정일웅(*총신대학교) 외 14개 대학 〈가나다순 *전직총장〉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산하 지방신학교

# 2021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요강

## 예하성부산신학교

(학장 한 명 점 목사)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 14
- T E L : 051)803-3927
- F A X : 051)581-0198
- e-mail :yhsbs3927@hanmail.net

## 예하성광주신학교

(학장 최 정 식 목사)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광주 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
- T E L : 062)952-7004
- F A X : 062)953-5004
- e-mail : sm1004@daum.net

## 예하성충남신학교

(학장 오 일 선 목사)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 041)567-3004
- F A X : 041)575-3171
- e-mail : changdeman@hanmail.net

## 예하성청주신학교

(학장 김 상 용 목사)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8
- T E L : 043)274-2265, 273-2211
- F A X : 043)237-2705
- e-mail : ho--gi@hanmail.net

ASSEMBLIES OF GOD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02)2675-5181~3 FAX:02)2677-5181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 십자가 바로 그 곳

돌고 돌아 찾아 온 곳
주님 못 박히신 그 십자가
시간을 넘어... 공간을 넘어...
그렇게 자식 사랑 보여 주신 곳
내가 나 될 수 있었던 곳
피 흘려 몸찢기신 바로 그 십자가

그가 찔림은 내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내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은 곳
새 생명 얻는 그곳은
언제나 카이로스를
경험케 하는 곳

절망을 묻고
기도가 시작되는 곳

마음의 깊은 죄와 상처들이
깨끗함을 받는 그 곳
피를 물같이 쏟으셨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

나의 무덤이 되어주신 곳...
나의 소망이 되어주신 곳...
나의 부활이 되어주신 곳...

신앙의 겉옷들이 버거워
중심을 잃을 때 성령님
따뜻한 손길로 나를 이끄시네
나에게 새 생명 주셨던 그 십자가 아래로...
그 진한 하나님 사랑 안으로...

2009.1.9
바디매오가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께 나온 것처럼 타성에 젖은
신앙의 겉옷을 벗어 버릴 것을 각오 하면서 이글을 쓴다.

# 일부 정치 유튜버 교회지도자 공격 자제해야

## 한국기독언론협, "유튜버들은 또 다른 형태의 언론, 발언 신중해야"

유튜브를 통해 명확한 사실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행위에 대해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발표됐다.

한국기독언론협회(회장 문병원)는 11월 15일(주일) '일부 정치 유튜버의 한국교회 공격에 대해 우려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정치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한국교회 목회자 및 지도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공격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언론협은 성명을 통해 "지난 정권 교체 이후,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 이념 충돌이 점차 극대화 돼가는 상황에, 시대의 해설자를 자처하는 정치 유튜버들이 다수 등장했다"고 전제 한 후 "하지만 시대의 진실을 밝힌다는 본래의 취지는 일부 유튜버들의 구독자 유치를 위한 과도한 경쟁 속에 오로지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콘텐츠 생산에 매진케 했다"며 "특히 이 와중에 교계 뿐 아니라 사회적인 명성과 신뢰를 얻고 있는 한국교회의 목회자 혹은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영상들이 다수 등장해 큰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 했다.

언론협은 또 "여기에 최근에는 극보수 정치 유튜버들이 경기도 용인의 모 교회 앞과 인근 지하철역에서 한국교회 장자교단의 총회장을 공격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그 영상을 그대로 유튜브에 방영해 교계를 경악케 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며 "한국교회는 특정 정치적 이념을 지지하거나, 특정 세력을 매도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언론협은 특히 "한국교회는 성경적 정의를 앞세워, 시대의 화합과 평등, 진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며, 이를 특정세력과의 결탁이나, 불의한 야합으로 매도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라며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나 유명 목회자를 일반 정치적 잣대로 판가름해 이를 비난하는 행위는 논제의 접근 자체가 전혀 타당치 않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언론협은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와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대화를 우선으로 하며, 그 대화에는 특정 정치적 이념이 그 순위를 결정하지 않는다"며 "이 시대의 유튜버들은 또 다른 형태의 언론인 만큼 그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해야 함은 물론이고, 잘못된 정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언론협은 "정치 유튜버들이 더 이상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지도자들을 정치적 이념에 기대어 공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며 "비판을 위한 비판을 즉각 중단하고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하나의 리더십을 만들어 가는데 힘을 모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사 설

#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감사

올해만큼 힘들었던 때도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다.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되어 전 세계를 강타한 우한 바이러스 코로나 19의 침투. 갈팡질팡 초조하고 불안했던 코로나 대응. 끝이 안 보이는 전염병의 공포. 총선 후 재편된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의 불편부당한 모습. 방역을 가장한 기독교탄압, 이런 상황에서도 비켜가지 않고 연거푸 몰아닥친 태풍과 사상 최악의 물난리.

다시 추수감사절을 맞았다.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 해를 보내며 마무리하는 추수감사의 계절 가을이다. 우리는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열매는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가을은 공짜로 오지 않는다. 수고와 대가를 지불해야 비로소 찾아오는 것이다.

봄이 오면 농부는 종자를 꺼내어 물에 담그고 소독을 하고 발화(發芽)를 시킨다. 못자리를 만들어 씨를 뿌린다. 여름이 오기 전 모내기를 하고 논에 물을 가득 채운다. 어느 정도 뿌리가 내리면 물을 완전히 빼고 논바닥을 바짝 마르게 한다. 그래야 뿌리가 깊이 들어간다. 뿌리는 내리면 다시 물을 가득 채운다. 7월이 시작되면 벼이삭에서 꽃이 피기 때문에 물과 양분을 많이 주어야한다.

한 여름의 뙤약볕 아래서 농부는 김매기를 시작한다. 피를 골라내고 잡초를 뽑아 영양분이 다른 곳으로 허비 되지 않고 오직 나락에게 가도록 만들어 준다. 가을이 시작되면 태풍에 신경을 써야 한다. 꽃이 피어 있는 상태에서 강한 바람을 맞으면 알이 차지 않고 쭉정이가 생기기 일쑤다. 특히 늦여름에 생기는 멸구는 벼에 치명적이다. 농약도 잘 뿌려 주어 벼를 건강하게 해야한다. 태풍이 지나가면 고개를 숙인 벼가 쓰러진다. 가족이 총 동원하여 벼를 묶어 썩지 않도록 만들어 줘야한다. 그리고 드디어 추수를 한다.

추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겨울이 오면 땅에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거름을 뿌리고 황토를 잔뜩 뿌려 '복토작업'을 해주고, 내년을 기약한다. 가을은 쉽게 오지 않는다. 시편 126:6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잠못 이룬 밤과 추위와 더위를 견디어내며 돌본 수많은 시간들이 축적된 후에 풍성한 가을은 여물게 오는 법이다. 이 시간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되길 기도드린다.

# 북핵 폐기와 대북 제재

과일 중에 이중성을 대표하는 과일이 사과다. 겉은 빨간데 속은 하얗기 때문이다. 토마토는 겉과 속이 같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가리켜 사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고,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을 토마토 같은 사람이라고 하기도 한다.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을 이중인간이라고도 한다. 지킬박사와 하이드가 대표되는 인물이다.

지도자 중에 이중인간이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 누구는 북한의 김정은을 계몽군주라고 말했다. 우리 해수부 직원을 사살한 후에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쏟아냈고, 누구는 맞장구치면서 김정은을 통 큰 지도자라고 말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남의 염병이 내 감기만 못하다더니... 참 나쁜 사람들이라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다.

김정은이 누구인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히틀러를 꼽은 사람이고, 히틀러 따라하기에 열중하는 사람인데… 계몽군주라고? 통 큰 지도자라고? 신뢰할 수없는 김정은을 상대로 더 이상 구걸하는듯한 모습을 버려야한다.

현 정부 들어 친중 · 친북 기조가 뚜렷함에 따라 한 · 미 동맹의 균열 또는 약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그런 만큼 이번 미국 대선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轉機)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 우선 동맹 정상화가 시급하다. 한 · 미 훈련 재개 등에 나서야 한다. 그간 현 정부 인사들은 "과거 미국을 선택했다 해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식으로 동맹을 폄훼하면서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는 모양새를 보여 왔다. 대통령은 11일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살 및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입 닫은 채 '북한이 변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데 그런 환상부터 버려야 한다.

북핵 폐기를 위해선 대북 제재를 견지하는 수밖에 없다.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는데도 이벤트 외교를 추구하면 동맹 갈등만 키운다. 이번 미국 대선을 계기로 가치 동맹을 재확인하고, 남북 관계도 상호주의를 축으로 한 기본으로 복귀해야 한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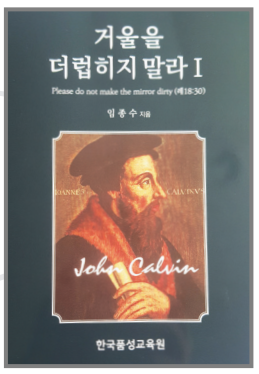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한

●연락 처 : 편집국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02)2675-5183 FAX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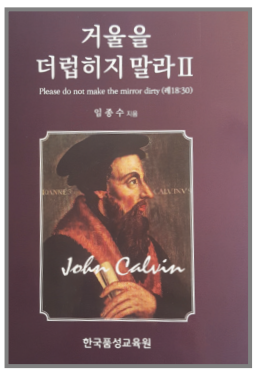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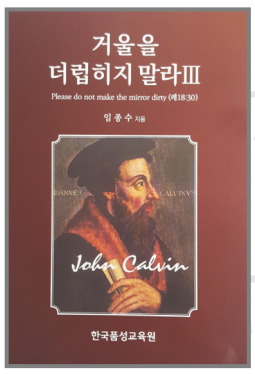

#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고 품성은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한다




제1권 품성과 비슷한 덕목인 성격, 덕성, 인격, 개성을 바울은 어떻게 개발하였는가? 이조 500년 유교와 고려 500년 불교가 만들어낸 윤리 도덕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윤리부문 7가지와 자기 계발의 부문에 필요한 10가지를 논하였다.




제2권 대인관계 부문 10가지와 신사적인 성도가 되기 위한 품성 4가지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품성과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품성이 무엇인가를 논하였다.




제3권 부정적인 품성 6가지와 영적전쟁의 품성 10가지와 신자가 물리쳐야 할 세력들 즉 점과 굿, 자살, 인종차별과 이단척결을 논하였고, 올바른 생활을 위한 실천분야 5가지를 논하였다. 만약 이 책을 매일 한 과씩 훈련한다면 훌륭한 신자가 될 것이다.
곧 새 언약과 품성과 자유의 대 헌장 두 권이 출판 될 것이다.

품성은 성공과 행복의 열쇠이다. 품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이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영적인 면만 강조하였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여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야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남의 밭에 고추를 따가는 생활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그래서 저자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영적훈련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품성에 관한 책자를 7권 출판하였다. 최근에 출판된 '거울을 더럽히지 말라' 1,2,3권을 소개한다.

**강의 안내**

각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중직자 세미나
각 지역에 거주하는 목회자들의 소 구룹

**책 구입처**

cslim4305@gmail.com 임종수 원장
재무담당 이미란 이사 010-8618-9982
계좌번호 농협 351-0771-1742-13
한국 품성교육원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 2021학년도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 1. 지원자격

| 학 과 | 수업연한 | 지원자격 |
|---|---|---|
| 신학과 (신입생) | 3년 6학기 (140학점) |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br>2. 소명의식이 있는 자<br>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
| 신학과 (편입생) | 2년 4학기 |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br>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

## 2. 제출서류(각 1통)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 3. 전형안내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 4. 접수방법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 5. 특전 및 기타사항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 2021학년도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 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일념.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 학 과 | 과정 | 수업연한 | 지원자격 |
|---|---|---|---|
| 목회학과 |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 3학차 |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br>•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br>•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br>•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

## 2. 전형 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 3. 전형일정

① 원 서 교 부 : 수시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③ 원 서 접 수 : 수시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 4. 전형료

① 전형료 : 30,000원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 6.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 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 7. 문의처 및 주소

■문의처 : 02)2678-5181 FAX:02-2632-0691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홈페이지 : www.ucts.org,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